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7
vol.311 11

표지
그린어린이합창단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소프라노 임세경과의 2년 전 약속 '오페라 아이다'

세계의 공연장
취리히 오페라하우스, 톤할레 오케스트라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Johannes Brahms

예술감독 오충근

연 주 KNN방송교향악단

바이올린 양고운

첼 로 김민지

KNN과 강림문화재단이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제5회 클래식 여행

브람스를 아시나요

2017.11.25(토) 5:0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 최 |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강림문화재단 | 후 원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 특 별 후 원 | (주)강림CSP 임수복장학재단 (주)강림오가닉 바이오콤 (주)삼비

무료초대권 신청및문의 | KNN 051-850-9568 KNN 홈페이지 (www.knn.co.kr 선착순마감)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기념

베토벤 서거 190주년

베토벤 32 피아노소나타 전곡연주회

피아노 음악의 신약성서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전곡연주, 그 감동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7. 11. 21(화)~11. 24(금) / 11. 28(화)~12. 1(금) 오후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주최 |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입장료 | 전석 2만원(초등학생이상 입장 가능) 문의 및 예매 |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www.bscc.or.kr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3회 정기연주회

클라리넷 채재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3회 정기연주회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II

음악으로 듣는 셰익스피어

THE RICHARD STRAUSS CYCLE II - COMPLETE TONE POEMS

2017.11.8수 오후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rogram

베버 | 클라리넷 협주곡 제1번
C. M. v. Weber | Clarinet Concerto No.1 in F minor, Op.73

차이코프스키 | 환상 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P.I. Tchaikovsky | Fantasy Overture "Romeo and Juliet"

슈트라우스 | 「맥베스」
R. Strauss | Tone poem "Macbeth", Op.23

지휘 최수열

주 최 부산문화회관
입장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예 매 www.bscc.or.kr
문 의 607-3111~3113(교향악단), 6075(정기회원)

▶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산부
20% ▶ 정기회원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전화문의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자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파지"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 2회 운행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4회 정기연주회

수석객원지휘자 임헌정

임헌정과 베토벤
HUN JOUNG LIM & LUDWIG VAN BEETHOVEN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4회 정기연주회

피아노 김태형

Program

베토벤 L. v. Beethoven	피아노 협주곡 제3번 Piano Concerto No.3 in C minor, Op.37
	교향곡 제5번 「운명」 Symphony No.5 in C minor "Fate", Op.67

2017. 11.17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문화회관
예 매 www.bscc.or.kr

입장권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문 의 607-3111~3113(교향악단), 6075(정기회원)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산부
20% ▶ 정기회원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전화문의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 0회 운행)

SPECIAL +

한국수력원자력(주)·(재)부산문화회관 사회공헌프로젝트

그린어린이합창단 드림콘서트

08

16

CULTURE +

세계의 공연장

취리히 오페라하우스, 톤할레 오케스트라

38

VIEW +

문화가 화제

2017 부산오페라WEEK

62

NEWS +

부산문화회관 소식

contents

SPECIAL +

08 **커버스토리**
한국수력원자력(주) · (재)부산문화회관 사회공헌프로젝트
그린어린이합창단 드림콘서트

CULTURE +

10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11월 공연 캘린더**

14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소프라노 임세경과의 2년 전 약속 '오페라 아이다'

16 **세계의 공연장**
취리히 오페라하우스, 톤할레 오케스트라

20 **축제 속으로**
제15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22 **테마가 있는 여행**
사과향 가득한 의성으로 떠나는 가을여행

VIEW +

28 **프리뷰**

38 **문화가 화제**
2017 부산오페라WEEK

40 **리뷰**

42 **프로그램 가이드**

NEWS +

58 **새로 나온 음반 / 새로 나온 책**

60 **SNS 서포터즈 공연관람기**

62 **부산문화회관 소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7년 11월호 통권 311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박인건 **편집인** 조요한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7년 10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그린 어린이 합창단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문화소외 없는 부산'을 실현하고자 한국수력원자력(주) 후원으로 (재)부산문화회관이 운영해온 그린어린이합창단이 11월 18일 드림콘서트를 개최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 · (재)부산문화회관 사회공헌프로젝트

그린어린이합창단 드림콘서트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재)부산문화회관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탄생한 그린어린이합창단은 지난 7월, 예술교육을 통해 부산지역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행복을 전하고자 창단한 어린이합창단으로, 부산 시내 17개 구 · 군의 문화소외계층 어린이 2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어린이합창단은 7월 7일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매월 4~5회에 걸쳐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을 비롯한 부산지역 지휘자, 연주자 등 음악인 34명의 재능기부로 합창단 활동을 가져왔으며, 단원들은 지난 5개월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노래로 꿈을 키우며, 다양한 예술감성교육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창의적 사고를 배울 수 있었다. 이번 드림콘서트를 통해 그린어린이합창단은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과 재능을 마음껏 무대에서 펼칠 예정이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이건륜이 총예술감독을 맡은 이번 드림콘서트는 그린어린이합창단 외에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마술사 최현우, 희망을 전하는 팝페라 가수 최성봉이 특별출연해 힘찬 첫 발을 내딛는 그린어린이합창단의 꿈을 응원한다. 하늘합창단, 무지개합창단, 바다합창단, 우주합창단 등 모두 4팀으로 나뉘어 과수원길, 앞으로, 종이접기, 새싹들이다, 산바람 강바람, 어린이 음악대, 우리의 소원, 오솔길 등 우리 동요를 합창으로 들려주며, 마지막 무대에서는 합창단 단원 모두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하는 합동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 신기한 마술쇼를 선사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마술사 최현우는 그동안 ISM 월드 챔피언십 오리지널리티 어워드(2009), 영국 블랙풀 매직컨벤션 클로즈업 부문 2위(2008), 국제마술사협회 마술컨벤션 쇼맨십 부문 우승(2002), 국제마술사협회 마술컨벤션 클로즈업 부문 우승(2002), 국제마술사협회 마술컨벤션 코미디 부문 우승(2002), 국제마술협회 경연대회 클로즈업 부문 우승(2002) 등 다수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국내 최초의 마술 레귤러 프로그램인 '최현우 · 노홍철의 매직홀', '일밤-이것이 마술이다'를 비롯해 '스타킹', '세.바.퀴'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대중들에게 신비한 마술의 세계를 소개해왔다. 특히 최현우는 '더 셜록-553번가의 비밀', '셜록홈즈1-사라진 마술사', '셜록홈즈2-셜록홈즈의 귀환', '최현우의 상상극장', '이상한 나라의 현우' 등 단순한 마술쇼가 아닌 테마가 있는 매직 콘서트로 마술애호가뿐 아니라 일반 관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출연자인 팝페라 가수 최성봉은 껌팔이 소년에서 팝페라 가수가 된 '희망 주인공'으로,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이번 드림콘서트 무대를 더욱 빛내준다. 고아로 태어나 17살이 될 때까지 거리에서 자랐던 최성봉은 껌을 팔던 나이트클럽에서 성악 음악을 들은 후 음악의 길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조폭을 피해 야간학교에 숨어 공부했으며, 어렵게 대전예술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개인 레슨비를 낼 수 없어 제대로 된 음악수업을 받을 수 없었다.

어려운 현실에 절망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던 최성봉은 지난 2011년 6월, '코리아 갓 탤런트' 지역예선에서 '넬라 판타지아'로 심사위원과 관객들을 울린 후 최종 파이널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그가 그토록 원했던 성악가의 길을 걷게 됐다. 자신의 힘들었던 성장과정을 가감 없이 서술한 에세이 '무조건 살아, 단 한 번의 삶이니까 - 거리의 아이 최성봉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노래하다'를 출간하기도 한 최성봉은 특히 자신이 겪었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자선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총예술감독 이건륜(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특별출연 마술사 최현우, 팝페라가수 최성봉,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프로그램

하늘합창단
과수원길, 앞으로

무지개합창단
종이접기, 새싹들이다

바다합창단
산바람 강바람, 어린이 음악대

우주합창단
우리의 소원, 오솔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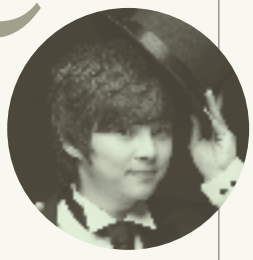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기타를 타고, 아빠 힘내세요

연합공연
무지개빛 하모니, 반달

참여 지역아동센터

대신지역아동센터(지휘/배소영)
좌천지역아동센터(지휘/박민영)
선임지역아동센터(지휘/박성의)
사하중앙지역아동센터(지휘/장용균)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지휘/김성배)
연제지역아동센터(지휘/최은총)
새에덴지역아동센터(지휘/김창돈)
문현지역아동센터(지휘/문동환)
명륜지역아동센터(지휘/박주현)
동래튼튼지역아동센터(지휘/구명금)
푸른지역아동센터(지휘/최용하)
모전지역아동센터(지휘/김낙범)
행복지역아동센터(지휘/김예민)
재반지역아동센터(지휘/노주은)
반여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지휘/권신영)
부산센텀지역아동센터(지휘/한혜진)
낙동지역아동센터(지휘/이정란)

총예술감독 이건륜


마술사 최현우

팝페라 가수 최성봉

11

2017 NOV

부산문화회관
공연일정

SUN	MON	TUE
전시실 **제13회 부산국제茶어울림문화제** 11월 3일(금)–11월 5일(일) 문의 : (사)부산차문화진흥원 809–1551 **동아대학교 제50회 회화과 졸업전시회** 11월 7일(화)–11월 9일(목) 문의 : 동아대학교 회화과 010–3527–4924	**2017 한중일 현대미술전** 11월 10일(금)–11월 15일(수) 문의 : 한중일 국제미술가협회 010–6258–0047 **제37회 부산미술제** 11월 18일(토)–11월 26일(일) 문의 : (사)부산미술협회 632–2400	**고신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 11월 27일(월)–11월 30일(목) 문의 : 고신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010–2567–7004
5 대 **부산광역시 여성연합합창단협의회 제15회 정기연주회 19:00** 무료/부산광역시 여성연합합창단협의회 (010–3833–0621) 챔 **정소윤 피아노 리사이틀 17:00** 전석 2만원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4: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6** 대 **노엘합창단 특별기획연주회_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칸타타 '다시 복음 앞에!' 19:30** 전석 1만원/황지선(010–8516–9822) 챔 **아트뱅크코레아 기획공연_브람스 서거 120주년 기념음악회 '브람스의 눈물' 19:30** 전석 2만원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7** 대 **제2회 재부 고교동문 연합합창제 19:00** 초대 경남여고 수정합창단(010–4872–9568) 챔 **이윤정 오보에 독주회 19:30** 전석 1만원 이윤정(010–2328–8730)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2 대 **부산가톨릭합창단 제39회 정기연주회 19:00** 전석 1만원 부산가톨릭합창단(010–3850–6153)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4: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3** 대 **경성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경성심포니오케스트라(010–7148–3353) 챔 **서혜리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theYoon(010–9025–2012)	**14** 대 **제50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00** 2만원·1만5천원 (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626–8081)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9 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II' 19:00** 4만원·3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4: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	**21** 챔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베토벤 32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19:3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6 챔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화승 사회공헌프로젝트 '날개를 펴다' 17: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0~2)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4: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7** 대 **부산시립무용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11:00** 전석 2천원(예약 단체에 한함) 부산시립무용단(607–3121~2) 챔 **제20회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전석 2만원 예솔기획(010–4909–7444)	**28** 대 **부산시립무용단 사랑나눔 송년공연 10:30** 초대(예약 단체에 한함) 부산시립무용단(607–3121~2) 챔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베토벤 32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19:3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챔 챔버홀 야 야외광장
사 사랑채극장

WED	THU	FRI	SAT
1 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II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 19:30 4만원·3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챔 소노레플루트앙상블 창단 30년 기념음악회 19:30 초대/신형숙(010-2550-0962)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 대 제1197회 MBC목요음악회 '닥터스 심포닉 밴드와 함께하는 힐링음악회' 19:30 초대(선착순 입장) (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챔 이일세 무반주 첼로 독주회 19:30 전석 2만원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3** 대 동북아해양수도 부산기원 멜로매니아 제23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 멜로매니아(010-9692-3973) 챔 제13회 부산국제茶어울림문화제 15:00 무료 (사)부산차문화진흥원 사무국(809-1551)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4** 대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14:00 무료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513-4306) 챔 제4회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가곡교실 정기연주회 17:00 무료/강학윤(010-9287-6350)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4: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8 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3회 정기연주회_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II '음악으로 듣는 셰익스피어' 19:30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챔 테너 신재철 제1회 독창회 19:30 초대/신재철(010-3884-4623)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9** 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마르티누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30 5만원·3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챔 강남길 피아노 리사이틀 19:30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0** 대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예술의 밤' 19:30 무료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320-8341) 챔 김정은 피아노 독주회 19:30 전석 2만원/이음기획(02-3453-7700)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1** 대 Turn Toward Busan 부산, 평화를 노래하다 '2017 평화물결' 11:30 무료/부산일보사(461-4437~8) 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2017 노자와 베토벤 '희로애락(喜怒哀樂)_IV. 락(樂)' 17: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챔 신라대학교 음악학과 총 동문음악회 17:00 무료/김상효(010-9230-4642)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4: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5 대 ㈜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하는 제26회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 자선음악회 19:00 초대 (재)마리아수녀회(250-5046~10) 챔 이기묘 바이올린 리사이틀 19:30 초대/이기묘(010-3361-0612)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6** 챔 윤지은 피아노 독주회 19:30 전석 2만원/더 클래시코(010-5424-7251)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7** 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4회 정기연주회 '임헌정과 베토벤' 19:30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챔 금찬이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금찬이(010-2850-6424)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8** 대 한국수력원자력(주)·(재)부산문화회관 사회공헌 프로젝트 '그린어린이합창단 드림콘서트' 17:00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66) 챔 임현지 피아노 리사이틀 17:00 2만원·1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4: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2 챔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베토벤 32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19:3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3** 대 부산시립무용단 제77회 정기공연 '댄스 포스_Dance Four's' 19:30 전석 1만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21~2) 챔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베토벤 32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19:3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4** 대 부산시립무용단 제77회 정기공연 '댄스 포스_Dance Four's' 19:30 전석 1만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21~2) 챔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베토벤 32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19:30 전석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5** 대 KNN과 강림문화재단이 함께하는 제5회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여행 17:00 초대(KNN 홈페이지에서 초대권 신청) KNN(850-9566, 9568) 챔 김은경 클라리넷 리사이틀 18:00 초대 김은경후원회(010-9073-1279)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4: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9 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3회 정기연주회 '부산한복 Day와 함께하는 제2회 美&樂 페스티벌' 19:30 3만원·2만원(문화가 있는 날 전석 50% 할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 챔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베토벤 32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19:3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30** 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 콘서트' 11:00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대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_뮤지컬 갈라콘서트 '레미제라블' 20:00 2만원·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3115~6) 챔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베토벤 32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19:3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2/1** 중 2017 부산오페라WEEK_부산오페라단 '오페라 갈라 콘서트' 19:30 5만원·3만원·2만원/부산오페라단(644-1001) 챔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베토벤 32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19:3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2/2** 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부산유니온 발레단 마술이 있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 17:00 5만원·3만원·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중 제31회 부산청소년합창제 16:00 무료/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0) 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11:00, 14: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1

2017 NOV

부산시민회관
공연일정

SUN	MON	TUE
전시실 **부산여류사진가회 회원전** 10월 30일(월)–11월 4일(토) 2층 전시실 문의 : 부산여류사진가회 010–2387–9939 **제25회 부산서각동인전** 11월 3일(금)–11월 6일(월) 1층 전시실 문의 : 부산서각동인 010–3073–7155 **2017년 (사)한국서도예술협회 회원전** 11월 8일(수)–11월 12일(일) 1, 2층 전시실 문의 : (사)한국서도예술협회 441–7091	**제8회 부산카톨릭서예인 회원전** 11월 13일(월)–11월 19일(일) 2층 전시실 문의 : 부산카톨릭서예인회 010–6555–5438 **2017 4th 바늘이야기** 11월 17일(금)–11월 19일(일) 1층 전시실 문의 : 바늘이야기 010–3870–1575 **제37회 부산미술제** 11월 20일(월)–11월 26일(일) 1, 2층 전시실 문의 : 부산미술협회 632–2400	**한뜰 신미경 서예전** 11월 28일(화)–12월 3일(일) 1층 전시실 문의 : 신미경 010–7756–5636 **제13회 포토클럽 빛그림자 사진전** 11월 29일(수)–12월 3일(일) 2층 전시실 문의 : 포토클럽 빛그림자 010–3844–4246
5 대 **뮤지컬 '캣츠' 14:00, 19:00** 15만원·12만원·9만원·6만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 소 **가족라이브뮤지컬 '브레멘음악대' 12:00, 14:00** 전석 1만2천원 인우 ent.(1688–5246)	**6**	**7** 대 **뮤지컬 '캣츠' 20:00** 15만원·12만원·9만원·6만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
12 대 **뮤지컬 '캣츠' 14:00, 19:00** 15만원·12만원·9만원·6만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 소 **어린이 율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11:00, 14:00** 전석 3만5천원 극단 화랑(1644–5564)	**13** 소 **부산시민회관 무료영화감상회 '형' 14:00**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67)	**14** 대 **뮤지컬 '캣츠' 20:00** 15만원·12만원·9만원·6만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 소 **제3회 장애인 가을음악회 19:00** 무료 (사)장애인정보예술협회(010–4220–9450)
19 대 **뮤지컬 '캣츠' 14:00, 19:00** 15만원·12만원·9만원·6만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 소 **제14회 부산오카리나클럽 정기연주회 18:00** 무료 부산오카리나클럽(010–2943–2773)	**20** 소 **50+ 생애재설계 콘서트 13:30** 초대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888–3294)	**21** 소 **제 18회 부산광역시 청소년 자원봉사 대회 16:00** 초대 청소년활동진흥센터(852–3462)
26 대 **뮤지컬 '엉뚱발랄 콩순이' 11:00, 14:00** 2만8천5백원·2만6천원·1만6천원 동그라미그리기, 라일락향기(1577–4868) 소 **어린이극 '우리 아빠가 최고야' 11:00, 14:00** 전석 3만원 온누리(442–6785)	**27** 대 **제2회 부산무용생활문화예술제 19:30** 초대 부산무용생활문화연합회(010–3582–6535)	**28** 대 **제2회 부산무용생활문화예술제 19:30** 초대 부산무용생활문화연합회(010–3582–6535) 소 **뮤지컬 '알라딘과 요정지니' 10:20, 11:25** 단체 5천원 극단 프렌즈(02–6203–6593)

뮤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야 야외광장

WED	THU	FRI	SAT
1 소 제20회 부산재능시낭송협회 정기공연 19:00 무료 부산재능시낭송협회(010-9900-8604)	**2** 소 홀로 어르신 어울림 효 한마당 12:30 무료 (사)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 (644-3028)	**3** 대 뮤지컬 '캣츠' 20:00 15만원·12만원·9만원·6만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	**4** 대 뮤지컬 '캣츠' 15:00, 20:00 15만원·12만원·9만원·6만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 소 가족라이브뮤지컬 '브레멘음악대' 11:00, 14:00, 16:00 전석 1만2천원 인우 ent.(1688-5246)
8 대 뮤지컬 '캣츠' 20:00 15만원·12만원·9만원·6만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 소 EBS애니메이션캐릭터 뮤지컬 '슈퍼빼꼼의 동화여행' 10:00, 11:10 단체 6천원 극단 좋은사람들(053-214-2141)	**9** 대 뮤지컬 '캣츠' 20:00 15만원·12만원·9만원·6만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 소 부산CBMC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 부산CBMC합창단(010-3832-7341)	**10** 대 뮤지컬 '캣츠' 20:00 15만원·12만원·9만원·6만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	**11** 대 뮤지컬 '캣츠' 15:00, 20:00 15만원·12만원·9만원·6만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 소 어린이 율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11:00, 14:00, 16:00 전석 3만5천원 극단 화랑(1644-5564)
15 대 뮤지컬 '캣츠' 20:00 15만원·12만원·9만원·6만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 소 제12회 100원 희망 불씨 콘서트 19:00 무료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853-0429)	**16** 대 뮤지컬 '캣츠' 20:00 15만원·12만원·9만원·6만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 소 김현주 제자발표회 '줄이랑 노래랑' 19:00 초대 부산가야금병창보존회(010-3589-6878)	**17** 대 뮤지컬 '캣츠' 20:00 15만원·12만원·9만원·6만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 소 순국 선열의 날 행사 11:00 초대 부산지방보훈처(660-6212) 소 한울림 아름다운 음악회 19:30 (사)한울장애인자활센터(248-8599)	**18** 대 뮤지컬 '캣츠' 15:00, 20:00 15만원·12만원·9만원·6만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 소 매직&버블쇼 11:00, 13:00, 15:00 전석 3만원 극단 오즈(1661-6702)
22 대 제5회 BBS 마인드 힐링콘서트 19:00 무료 BBS 부산불교방송(797-5120)	**23** 대 테너 박인수 데뷔 50주년 기념음악회 19:30 무료 청향회(010-9314-0137) 소 모여락(樂) 당.나.귀. 19:00 무료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627-8521)	**24**	**25** 대 뮤지컬 '엉뚱발랄 콩순이' 11:00, 14:00, 16:00 2만8천5백원·2만6천원·1만6천원 동그라미그리기, 라일락향기(1577-4868) 소 어린이극 '우리 아빠가 최고야' 11:00, 14:00, 16:00 전석 3만원 온누리(442-6785
29 소 부산시민회관 문화가 있는 날 '영화 밀정' 14:00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67)	**30** 대 21C전통춤회 김영진선생님 헌정공연 18:00 무료 21C전통춤회(010-9397-4242) 소 2017 M. Dance Theatre 정기공연 19:30 전석 1만원 엠댄스시어터(010-9868-0420)	**12/1** 대 부산중구시니어코러스 제4회 정기연주회 19:00 무료 부산중구시니어코러스(010-3590-2434)	**12/2** 대 개그 플러스 15:00, 18:30 7만7천원·6만6천원 ㈜문화락(1600-1602)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한국인 최초 '아이다'로 베로나 야외극장에 선

소프라노 임세경과의 2년 전 약속 오페라 '아이다'

가을이 무르익는 10월부터 11월까지는 공연 예술의 성수기로, 수많은 작품들이 극장에서 상연되면서 공연을 선택하는 재미에 관객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된다. 그중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에게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품이 바로 쿠 컴퍼니가 제작, 배급하고 10월과 12월, 경남오페라단과 밀레니엄 오케스트라가 각각 주최해 창원 성산아트홀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 올리는 오페라 '아이다' 공연이다.

이 작품은 우선 주역들이 눈길을 끈다. 현재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극장에서 가장 많은 무대에 오르며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소프라노 임세경이 '아이다'에, 한국인 최초로 밀라노 스칼라 극장 주역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이정원이 '라다메스'로, 한국인 최초로 벨리니 국제콩쿠르 등 6번의 국제콩쿠르에서 모두 1위 우승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있는 대한민국 국보 메조소프라노 이아경이 '암네리스'로, 그리고 독일 오페라극장 전속 가수로 15년간 활동하고 우리에게는 JTBC '팬텀 싱어'의 프로듀서로 잘 알려진 베이스 손혜수가 '람피스'를 열연하며, 게다가 부산이 낳은 세계 최정상의 발레리노 김용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안무를 맡는 등 이름만 대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오페라 팬들에게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공연 프로젝트이다.

'아이다'의 내용을 연출가 입장에서 잠깐 언급하자면, 에티오피아의 공주이지만 이집트 공주의 시녀 신분이 되어버린 기구한 여인 아이다, 이집트 최고의 장군으로 칭송받으며 왕과 공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라다메스, 이집트의 공주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한 남자의 사랑을 더 갈구하는 암네리스 등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조국의 운명과 사랑이란 더 큰 힘 앞에 번민하고 무너지고 마는 세 영혼의 사랑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아이다와 암네리스 이 둘은 작품 안에서 숙명의 라이벌이다. 서로 속한 조국은 다르지만 그녀들은 한 나라의 공주로서 같은 신분을 가졌으며 공교롭게도 한 남자를 사랑하는 기구한 운명에까지 처하게 된다. 더욱이 아이다와 라다메스의 관계를 알기 전까지 암네리스는 아이다를 마치 자신의 친자매처럼 애정을 갖고 대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더욱 컸다. 에티오피아의 공주로서 조국의 운명을 위해 사랑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조국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저버릴 것이냐, 선택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들의 고뇌의 깊이는 상동하다.

이런 스토리로 인해 오페라 '아이다'는 작품이 초연된 이래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지만 반면 거대한 스케일로 인해 무대에 오르기가 쉽지 않다. 2년 전 나는 이탈리아에 비오티-발세시아 콩쿠르 심사를 위해 갔다가 한국의 소프라노 임세경 씨가 100년의 역사를 가진 베로나 야외극장에서 한국인 최초로 아이다로 데뷔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다. 그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유학시절부터 그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차근차근 지켜보았던 나는 그 무대가 꼭 보고 싶었다. 그런데 '아! 일정이….' 내가 밀라노를 떠난 다음날이 공연이라 그 공연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아쉬움에 당시 나는 임세경 씨와 이런 약속을 하였다. "세경 씨, 베로나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매우 아쉽지만, 한국에 있는 오페라 팬들에게 아이다의 개선식처럼 다시 멋지게 돌아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누구와도 아닌 한국에서는 나랑 제일 먼저 아이다를 한다고 약속해요!". 내 말에 세경 씨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나는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해 놓고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기 시작했다. 내 예상대로 임세경 씨는 베로나 무대 이후 스타가 되어 전 세계를 누비며 활동을 하게 됐을 뿐 아니라, 이듬해 서울에서 테너 정호윤,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 씨와 '테너를 사랑한 여인'이라는 큰 콘서트로 고국 팬들에게 자신의 명성에 걸맞은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한국에서는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야 부를 수 있는 성악가로 변모해 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기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가 공연을 같이 하게 되면서 임세경만을 찾는다는 소문을 전해듣게 된 나는 이러다가 그녀가 나와 아이다를 같이 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며 조금씩 염려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임세경 씨는 나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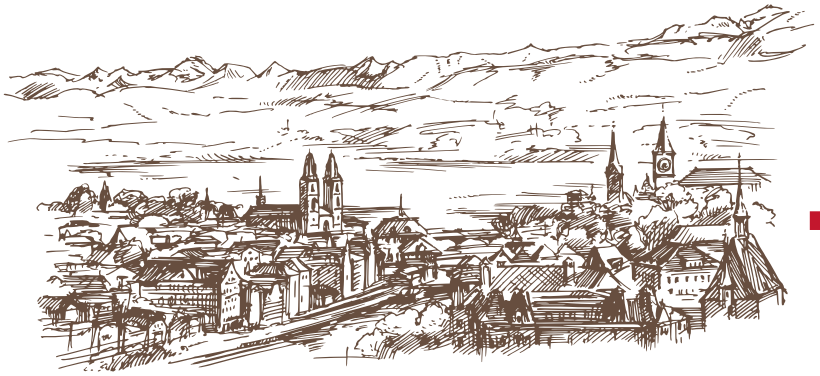
약속을 늘 잊지 않고 스케줄표에 내가 요청한 시간들을 체크해 주었고 그렇게 서로 오랜 시간 스케줄을 계속 타진한 끝에 2017년 10월과 12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연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공연 스케줄을 미리 잡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훌륭한 연주자들을 불러 오기 어렵다. 그래서 계속 일정 조정을 위해 정보를 주고 받았는데, 임세경 씨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계적인 극장에서의 몇몇 공연을 계속 유보해 놓았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먼저 한 약속을 철칙같이 지키지만, 계약서에 사인이 되지 않은 구두 약속을 한 경우 가끔 배신(?)을 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심지어 사인을 해도 더 좋은 조건을 위해 도망가는 경우-를 본 나로서는 참으로 고맙고 그의 그런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많은 단체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가 드디어 2017년 10월과 12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극중 영원히 함께한다는 아이다의 약속처럼, 밀라노에서 그녀와 약속한 이번 '아이다 프로젝트'는 한국을 넘어 세계의 극장에서 러브콜을 받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우리의 백스테이지 이야기도 계속될 것이다.

세계의 공연장

글·사진 **이상훈** 드림원정대 대표



SWITZERLAND

X

독일어권을 대표하는 스위스 최대의 도시이자 관문 취리히

취리히 오페라하우스, 톤할레 오케스트라

스위스는 3개 언어를 공식적으로 쓰는데,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서쪽은 프랑스어권, 루가노를 중심으로 한 남쪽은 이탈리아어권, 그리고 취리히를 중심으로 한 북쪽은 독일어권으로 나누어진다. 아름다운 호반도시 취리히는 독일어권을 대표하는 도시일뿐만 아니라 스위스 최대의 도시이자 관문이다. 국내에서도 인천에서 국적기로 직항 노선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58년에는 로마의 영토였다가 496년에는 프랑크 왕국의 영토, 843년에는 게르만의 영토, 1219년에는 신성로마제국의 자유시, 그리고 1351년에 스위스 연방에 가입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1519년부터는 츠빙글리에 의한 종교개혁이 이곳에서 시작되었으며 페스탈로치를 비롯하여 많은 작가와 학자가 태어났고 취리히 공과대학은 20명에 가까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본론으로 돌아와 취리히의 공연장을 이야기하면 취리히 호를 마주보고 호수 우측에는 오페라하우스가, 좌측에는 톤할레 오케스트라가 위치해 있다. 취리히 오페라하우스(Zurich Opernhaus)는 1891년부터 스위스를 대표하는 오페라 극장으로 명성을 떨쳐왔다. 좌석수 1,200석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로, 그 전신은 1834년에 문을 연 악티엔 극장(Aktientheater)이다. 이 극장을 이야기하면서 작곡가 바그너를 빠트릴 수 없는데, 그는 드레스덴 궁정악단 지휘자로 있을 때 일어난 혁명에 적극 가담했다가 실패로 끝나자 스위스로 망명하였다. 13년간의 스위스 생활 중 9년을 취리히에서 보냈다(바그너 이야기는 뒤에 계속). 악티엔 극장은 1890년 화재로 전소되었고, 불가피하게 취리히 오페라단은 인근의 취리히 시립극장(Stadtheatre Zurich)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그리고 1925년 시립극장(슈타트테어터)에서 지금의 오페라하우스 취리히로 바뀌었다. 현재의 모습은 1982년부터 2년간의 신축공사 이후의 모습이다. 개관기념으로 바그너의 오페라 '뉘른베르크의 명가수'가 무대에 올려졌다.

건물의 정면은 백색과 회색 화강암을 사용한 신 고전주의 양식이지만 내부는 화려한 로코코 양식으로 되어 있다. 개인적으로는 서유럽의 많은 오페라 극장 중 가장 좋은 음향과 시야를 보여주는 극장이 아닌가 싶다. 이는 다소 작음 볼륨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이어지는 시즌이 끝나고도 7월까지 오페라를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극장 중 하나이다. 뮌헨과 마찬가지로 시즌이 끝나면 바로 오페라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여느 극장처럼 오페라 이외에도 발레와 콘서트 그리고 독창회가 함께 공연되는데 2017/18 시즌작을 살펴보면 토스카를 필두로 예프게

취리히 오페라하우스

니 오네긴, 피델리오, 나비부인, 파르지팔,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베르테르, 투란도트, 운명의 힘, 카르멘, 라 트라비아타와 같이 인기있는 작품이 공연되기도 하지만, 다소 실험적인 작품과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 그리고 다수의 현대작품까지 총 28편의 오페라가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공연장과 연주단체가 동명인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는 1862년에 창립된 스위스를 비롯 독일어권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이다. 취리히를 비롯한 스위스 독일어권은 종교개혁의 거센 파도 이후, 교회음악 문화의 견인차 역할을 완수할 수 없게 되었다. 대신, 개신교의 성가를 수집하거나 수집 목적으로 만들어진 콜레기움 무지쿰이 시민의 음악 문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18세기에는 합창이 활발해져 18세기 말에는 페스탈로치의 영향을 받은 음악가들의 활동이 취리히에

취리히 도시전경

1

2

서 시작되지만 여전히 합창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1834년에 취리히 오페라가 설립되고 오케스트라가 필요하게 되면서 첫 번째 오케스트라가 등장한다. 여기에, 실패로 끝난 드레스덴 혁명에 가담, 스위스에 망명을 강요당한 바그너가 온다. 1849년, 베젠동크의 식객으로 취리히에 머물고 있던 바그너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작곡에 집중하는 한편, 취리히의 제의를 받고 종종 콘서트를 열었다. 이 연주회가 좋은 평판을 얻어 기존의 콘서트 오케스트라 설립의 기운을 취리히 시민에게 가져오게 되고, 이렇게 1862년 취리히 오페라 오케스트라 등을 모체로 처음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실시하는 단체가 탄생하게 된다.

1868년, 톤할레 협회의 설립에 따라 이 오케스트라를 모체로 현재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가 설립됐다. 설립 당초 단원은 불과 33명이었다고 한다. 초대 지휘자는 라이프치히 게반트 하우스 오케스트라에서 악장을 했던 프리드리히 외거가 초빙되었다. 외거는 작곡가이기도 하며 나중에는 브람스의 측근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스위스에 자주 방문한 브람스가 수차례 톤할레에 객원 출연하기도 했다. 1895년 브람스를 초청, 현재 본부를 두고 있는 콘서트 홀인, 톤할레의 낙성 기념 콘서트가 열렸다. 브람스 작곡의 '승리의 노래'를 지휘한 후 초대 지휘자인 외거가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지휘하여 새로운 톤할레 제1회 콘서트가 열렸다.

27세의 젊은 나이로 톤할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어 오케스트라의 기반을 닦은 외거도 1906년에 퇴임하고 후임에는 제2대 상임지휘자 폴크마 안드레가 취임했다. 안드레는 외거가 38년을 몸담았던 오케스트라를 이후 40년 이상에 걸쳐 주도하게 된다. 1949년에는 안드레의 제자이기도 한 에리히 슈미트가 그

1 오페라 '돈 카를로'
2 취리히 오페라하우스 내부
3 톤할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 데이비드 진만
4 , 5 톤할레 오케스트라 내 · 외부

후임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었으며, 그 후 1965년부터는 루돌프 켐페를 상임지휘자로 맞이하면서 오케스트라는 대약진을 거듭, 유럽 최고 오케스트라의 지위를 확립한다. 1967년에서 1971년까지 샤를 뒤투아가 프랑스계 레퍼토리를 충실히 들려줄 목적으로 톤할레에 자주 객원지휘를 하였고 이후 독일인 피아니스트 출신의 지휘자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그리고 일본인 와카스기 히로시가 지휘를 맡기도 했다. 1995년~2014년까지는 미국인 지휘자 데이비드 진먼의 주도로 톤할레의 아르테 노바 레이블에서 많은 녹음을 했으며, 현재에는 프랑스 니스 출신의 30대 초반의 신예 리오넬 브랑기에(Lionel Bringuier)가 지휘를 맡고 있다.

공연장 내부는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빈 콘체르트하우스와 같이 장방형의 전통적인 홀의 모습을 하고 있다. 객석 수 1,455석으로 단이 없는 1층의 파테어 좌석과 ㄷ자형으로 2층은 갤러리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무대 중앙에 대형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다. 음향은 비교적 우수한 편이며, 동명의 극장이 독일 뒤셀도르프에도 있어서 정확한 공연장의 명칭은 도시명과 함께 연이어 붙여 톤할레 오케스터 취리히(Tonhalle Orchester Zurich)가 되겠다.

THE 15TH

제15회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

SHORT FILM FESTIVAL

ASIANA INTERNATIONAL

11월 2일(목)-7일(화) 씨네큐브 광화문, CGV피카디리1958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사무국 02-783-6518, aisff.org

국내 최초의 국제경쟁단편영화제인 2017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Asiana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AISFF)가 11월 2일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

전 세계 단편영화의 각축장으로서 영화의 미래인 단편영화만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발견하고 국제적인 트렌드를 만끽할 수 있는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는 또한 대안적인 단편영화의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는 '세계 최초의 기내영화제'로 주목받아 왔다. 제5회 영화제가 열렸던 2006년부터 단편영화의 대중적인 보급과 대안 배급의 일환으로 그 해 경쟁부문 수상작 및 화제작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상영프로그램으로 만날 수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영을 통해 한 달간 주요 작품들을 소개해오고 있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번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는 경쟁부문 출품 공모에 해외 4,513편, 국내 939편 등 총 125개국 5,452편이 출품되어 또 다시 역대 최다 출품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는 프랑스와 독일 등 전통적인 유럽 단편들의 강세 속에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 단편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심사를 거쳐 국제경쟁부문 총 31개국 47편, 국내경쟁부문 총 13편이 선정되어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심사위원장으로 영화 '남부군', '하얀전쟁',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부러진 화살' 등을 연출한 정지영 감독을 비롯해 영화평론가 이동진, ㈜영화사 집 대표 이유진, 영국 언카운터스영화제 집행위원장 리치 워렌, 영화감독 로사리오 가르시아-몬테르 등이 심사위원으로, 영화배우 이제훈, 이주영이 특별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올해 경쟁부문 수상작은 11월 7일 오후 7시 씨네큐브 1관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 폐막작으로 다시 한 번 상영된다

특히 올해 15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전에서는 이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출신 감독들의 초기작에서부터 영화제 기간 동안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들까지 지난 14년간 특별한 순간을 맞았던 작품들을 재상영한다. 2011년 장편 데뷔작 '나쁜 의도'로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받은 로사리오 가르시아-몬테로 감독이 연출한 단편 '외로우세요?'는 제1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대상 수상작이며, 가르시아-몬테로 감독은 올해 특별히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2006년 처음으로 신설된 '관객심사단상'의 첫 수상작 '골수팬'과 제12회 '관객심사단상'을 수상한 '내 인생의 물고기'는 11월 2일 오후 7시 씨네큐브 1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개막작으로 올해 영화제의 시작을 알린다. 이밖에 2015년 장편 '아페림!'으로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을 수상한 루마니아 출신의 라드 주드 감독의 제5회 영화제 대상작 '소년과 TV'를 비롯해 장편 '힘내세요, 병헌 씨', '스물'로 주목받고 있는 이병헌 감독의 제7회 영화제 최우수 국내작품상 수상작 '냄새는 난다'도 이번 특별전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세계 영화인들의 특별한 단편을 만날 수 있는 '시네마 올드 앤 뉴'는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의 전통적인 특별프로그램으로, 올해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영화인들의 단편들을 초청, 상영한다. 2007년 '너를 보내는 숲'으로 칸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세계적인 여성감독 가와세 나오미의 최신 단편 '패러렐 월드'를 국

시네마 올드 앤 뉴 '페러렐 월드'

시네마 올드 앤 뉴 '어린 재단사'

개막작 '골수팬'

개막작 '내 인생의 물고기'

내 최초로 소개하며, 영화 '따뜻한 색, 블루'로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른 레아 세이두가 주연을 맡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감독인 루이 가렐의 2010년 연출작 '어린 재단사'도 만날 수 있다. 또 다른 특별전인 '폴란드 애니메이션의 세계'에서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유수의 영화제에서 소개된 대표적인 폴란드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초청, 상영한다.

지난 2005년에 시작한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의 사전제작지원제도인 'AISFF 펀드 프로젝트'는 국내 단편영화인들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공개 피칭을 통해 선정작을 결정하고 있다. 최종 선정작인 'AISFF 펀드상'에는 최대 1,000만원의 제작비가 지원되는데, 올해는 주한중국문화원의 후원으로 '주한중국문화원상'을 신설, 총 500만원의 상금을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 올해 지원한 프로젝트는 총 114편으로, 1차로 6편이 선정되었으며 최종 수상작들은 7일 열리는 폐막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AISFF 펀드상' 수상작인 문지원 감독의 '코코코 눈!'은 올해 국내경쟁부문에 선정되어 월드프리미어로 영화제에서 공개된다.

사과향 가득한 의성으로 떠나는 가을여행

그 어느 해보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나던 10월 둘째 주 금요일, 또 다시 시작되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작은 여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10월의 테마여행지는 사과향 가득한 義와 禮의 고장 의성. 지난 2013년에 이어 오랜만에 진행하는 의성여행에 여행 전부터 회원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테마여행을 떠나는 10월 13일 이른 아침, 테마여행 당첨의 행운을 안은 정기회원 가족들이 하나둘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였다. 이른 시간임에도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가을 속으로 떠나는 여행에 버스 출발을 기다리는 회원들의 얼굴에도 기대감이 가득하다.

세 시간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신라의 천년고찰 고운사. 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원년(서기 681년) 해동 화엄종의 시조인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원래는 고운사(高雲寺)라 칭했다. 그러나 신라 말, 불교와 유교, 도교에 모두 통달해 신선이 되었다는 대학자 고운(孤雲) 최치원 선생이 여지(如智), 여사(如事) 두 대사와 함께 가운루(駕雲樓)와 우화루(羽化樓)를 건립하면서 선생의 호 '고운(孤雲)'을 빌려와 고운사(孤雲寺)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고운사는 절 입구에서 일주문까지 이르는 1km 남짓한 소나무길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일주문과 사천왕문을 지나자 개울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누각이 회원들을 맞는다. 바로 이곳이 최치원 선생이 건립했다는 가운루이다. 계곡바닥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다시 나무기둥을 세워 누각을 떠받치고 있는데, 기둥의 길이가 조금씩 다른데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현재의 가운루는 1668년 중수했지만 여전히 형상 자체만으로도 특이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가운루와 인접해 개울을 비켜 앉은 누각은 우화루인데, 특이하게도 우화루에는 현판이 두 개 달려있다. 외부에는 신선이 된다는 도교적인 뜻의 우화루(羽化樓)라는 현판이, 누각 안에는 불교적 용어인 꽃비가 내린다는 뜻을 지닌 우화루(雨花樓)라는 현판이 달려 있다.

특히 우화루 서쪽 벽면에는 '움직이는 벽화'로 유명한 호랑이 벽화가 그려져 있다. 조선 말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호랑이 벽화는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호랑이의 시선 또한 바뀌는 것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이 벽화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운사를 찾고 있다. 그 신기한 현상에 회원들이 너도나도 호랑이 벽화 앞을 왔다갔다 하며 카메라를 들이댄다.

문화유산해설사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고운사 경내를 한 바퀴 돌아본 회원들은 두 번째 방문지인 '한국애플리즈'로 자리를 옮겼다. '사과의 고장' 의성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한국애플리즈는 나만의 사과와인 만들기 체험으로 유명하다. 특히 이곳에서는 와인병에다 개개인의 사진을 라벨로 사용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만의 와인병을 가질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우선 와인병 라벨에 들어갈 기념사진을 돌아가며 찍은 후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의성이 자랑하는 사과로 맛을 낸 치킨까스로 점심식사를 마쳤다.

점심식사 후 사과와인의 제조과정을 간단하게 들은 정기회원들은 자신의 와인병에 와인을 담기 위해 와인이 숙성되고 있는 저장고로 자리를 옮겼다. 특이하게도 이곳에는 와인이 오크통이 아닌 우리의 전통 옹기독에 담겨있어 시선을 끌었다. 저장된 와인을 와인병에 담고 코르크마개로 밀봉하는 체험을 가진 후 미리 찍어놓은 사진으로 라벨을 부착하자 하나밖에 없는 와인병이 탄생했다. 와인만들기 체험이 끝난 후에는 사과가 잔뜩 들어간 애플파이를 그 자리에서 직접 구워 사과와인 시음과 함께 시식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오후에는 의성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삼한시대의 고대국가 조문국의 유적을 전시해놓은 조문국박물관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올해 4월 문을 연 조문국박물관은 조문국의 역사뿐 아니라 의성의 발자취를 보존, 전시하는 의성 문화유산의 보고로, 상설전시관 외에도 의성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민속놀이를 만나볼 수 있는 민속유물전시관, 어린이 전용박물관인 어린이 고고발굴체험관과 고분전시관 등 다양한 전시관을 통해 의성의 역사와 마주할 수 있다.

의성의 마지막 방문지는 의성의 대표적인 고택촌으로 사랑받는 산운(山雲)마을. 일명 '대감 마을'로 불리우기도 하는 이곳에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살던 반촌의 모습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374호로 지정되어 있는 '운곡당'이 자리하고 있다. 영월부사였던 이희발이 세운 집으로, 안채 앞쪽으로 작은 벽이 하나 있는데 외부인의 시선을 막기 위한 가벽이라고 한다. 운곡당과 같이 담이 맞붙어 있는 고택은 '정우당'으로, 1900년 죽파 이장섭이 지은 고택이다. 운곡당에서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소우당'을 만날 수 있다. 고풍스러운 주택으로 1880년대에 안채를 고쳐 지은 것 빼고는 지을 때의 모습 그대로라고 한다. 별당에 딸린 정원은 영남 제일의 정원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린 한국식 전통 정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근에는 산운마을의 폐교를 활용해 아름다운 생태공원으로 탄생시킨 산운생태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인기가 많다.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의성의 자연 속에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즐거웠던 10월 테마여행. 수확을 기다리는 향긋한 사과향처럼 정기회원 가족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여행

일정

07:30	부산문화회관 출발
10:00	순천 낙안읍성 도착, 탐방
12:00	중식
13:00	순천생태공원 탐방
15:00	순천문학관 탐방
16:00	부산으로 출발

12.08일

조선시대 서민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낙안읍성을 시작으로 세계 5대 연안습지로 선정된 아름다운 순천만으로 떠나는 초겨울 여행,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를 비롯하여 검은머리갈매기, 황새, 저어새 등 국제적 희귀조류를 비롯한 200여 종의 조류, 아름다운 순천만의 S자형 수로, 갈대 장관을 만난다.

11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 회원

김성진(금정구 노포사송로)
김연관(부산진구 거제대로)
김용조(수영구 무학로)
남순옥(연제구 법원북로)
오혜숙(동래구 명륜로)
이효정(연제구 반송로)
장미향(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조민희(남구 유엔로)
최정화(남구 유엔로)
황경옥(해운대구 센텀중앙로)

기존 회원

곽기만(영도구 일산봉로)
김성덕(사상구 냉정로)
김황연(사하구 사하로)
심상신(금정구 식물원로)
이재일(남구 황령대로)
주 덕(금정구 금단로)
진영규(양산시 고향의봄로)
채문식(남구 석포로)
최칠수(사상구 엄궁북로)
황광주(수영구 좌수영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엽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으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부담)

|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Turn Toward Busan

지휘 김봉미

사회 손지현
해금 윤해승

테너 엄정행

부산, 평화를 노래하다

2017 평화물결

2017.11.11 (토) 오전 11: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전석 무료 |

지휘 김봉미 / 테너 엄정행 / 해금 윤해승 / 사회 손지현
부산시립교향악단 / 부산시립합창단 / 부산시립무용단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주최 | 부산일보사 부산광역시 | 주관 | 부산문화회관 | 공연문의 | 부산일보사 051)461-4437~8

View Plus

INVITATION TO THE ARTS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글로빌아트홀 | 505-5995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더 무지카 아트홀 | 010-7191-2878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미리내소극장 |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솜사탕아트홀 | 922-4545
수아트홀 |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 623-6232, 245-5919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뮤지컬 '캣츠' 내한공연 in 부산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뮤지컬'이라는 찬사를 받는 뮤지컬 '캣츠'가 부산을 찾는다. 11월 3일부터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뮤지컬 '캣츠'는 특히 새로운 관객층과 시대에 맞춰 새롭게 변화한 버전으로,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첫 선을 보인다.

T.S 엘리엇의 우화집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를 바탕으로, 최고의 제작자 카메론 매킨토시와 뮤지컬계의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환상의 호흡으로 탄생한 '캣츠'는 환상적인 군무와 세계적인 명곡 'Memory'를 포함한 아름다운 음악으로 국경은 물론 세대를 뛰어넘어 큰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 1981년 영국 웨스트엔드 초연 이후 뛰어난 작품성과 예술성으로 30여 년간 뜨거운 인기를 누리며 '가장 롱런한 뮤지컬'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으며 2014년 12월, 12년 만에 리바이벌 공연을 선보인 후 2015년 파리, 시드니, 2016년 브로드웨이, 2017년 두바이, 크로아티아, 벨기에, 스위스에 이어 한국에 상륙하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특히 이번 2017 토니상 노미네이션의 강력한 후보작 선정에 이어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로 아카데미 3관왕을 수상한 톰 후퍼 감독의 영화로 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2의 '캣츠' 열풍을 예고하고 있다.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고양이들의 축제 '젤리클 볼'을 그린 뮤지컬 '캣츠'의 매력은 역시 30여 마리의 개성적인 고양이들에 있다. 저 높은 천상으로 향할 단 한 마리의 고양이로 선택받기 위해 그들이 풀어놓는 삶에는 우리 인간들과 같은 인생의 단면이 녹아 있다. '캣츠'가 시대를 초월하여 전 연령층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고양이들을 통해 삶의 깊은 통찰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화려한 춤과 음악, 환상적인 무대 메커니즘으로 마법 같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캣츠'는 정교한 분장과 디테일한 움직임으로 인간 고양이를 탁월하게 표현해낸다.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캣츠'는 안무가 질리언 린의 안무에 변화를 추가해 더욱 역동적이면서도 파워풀하게 펼쳐지는 군무와 각 고양이 캐릭터별로 개성을 살려낸 업그레이드된 비주얼, 그리고 최고 역량을 갖춘 배우들로 더욱 고양이스러운 '캣츠'의 진수를 선사한다. 특히 미국, 영국, 호주, 남아공 등에서 펼쳐진 5개월간의 오디션을 통해 최고의 기량을 지닌 최상의 캐스트가 완성되면서 이번 한국무대에서는 뮤지컬 '위키드'의 엘파바로 화제가 된 푸른 눈의 '그리자벨라' 로라 에밋, TV, 영화에서 활약한 섹시고양이 '럼 텀 터거'의 윌 리처드슨, 브로드웨이에서 활약한 월드 스타 브래드 리틀, 이안 존 보그 등 베테랑 배우들이 대거 무대에 설 예정이다.

완벽한 호흡으로 화려하고 파워풀한 '캣츠'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다양한 인생을 경험케 하는 개성적인 캐릭터들의 깊이 있는 메시지와 아크로바틱, 탭 댄스 등 뮤지컬의 대표적 안무로 꼽히는 화려한 춤의 향연, 가슴을 적시는 감동의 순간으로 뮤지컬 그 이상의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일시 11월 3일(금)-19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8:00, 일요일 오후 2:00, 7:00(월요일 공연없음)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젤리클석 15만원, VIP석 15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월드쇼마켓(1566-549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3회 정기연주회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II 음악으로 듣는 셰익스피어

지휘 최수열

클라리넷 채재일

지난 9월 29일 취임연주회를 통해 1년 8개월간의 공백을 깨고 새롭게 선임된 신임 상임지휘자 최수열과 함께 힘찬 출발을 내딛었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제533회 정기연주회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신임 상임지휘자 최수열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첫 번째로 마련한 프로젝트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두 번째 무대로, 슈트라우스가 최초로 시도한 첫 번째 교향시인 '멕베스'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슈트라우스의 '멕베스' 외에도 차이코프스키 환상 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등 '음악으로 듣는 셰익스피어'라는 부제로 진행되며, 독일 낭만파 음악의 선구자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제1번'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의 협연으로 감상할 수 있다.

지난 9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11대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최수열은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창의적인 프로그래밍 감각과 현대음악에 대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지휘자로 평가받으며, 포브스 코리아 '2030 파워리더 30인', 월간객석 '차세대를 이끌 젊은 예술가 10인'에 지휘자로서는 최초로 선정된 바 있다. 2014년부터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활동해온 최수열은 특히 '21세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젊은 지휘자'라는 호평을 받을 만큼 현대음악의 스페셜리스트로 꼽히며, 최근 몇 년간은 많은 무대를 통해 작곡가 윤이상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관현악곡을 집중적으로 소개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은 베버의 클라리넷 작품을 대표하는 '클라리넷 협주곡 제1번'. 고전주의 형식에 낭만주의를 연상케 하는 우수 젖은 선율과 처음부터 끝까지 화려한 독주 클라리넷의 움직임이 돋보이는 클라리넷 명곡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의 연주로 들려준다.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은 미국 5대 오케스트라인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객원수석에 이어 LA오페라의 종신 수석 클라리네티스트, 스위스 UBS 베르비어(Verbier) 페스티발 오케스트라 클라리네티스트,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객원단원, 밀워키 심포니 단원, 그리고 싱가포르 심포니, 말레이시아 필하모닉 객원수석으로 활동한 데 이어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영남대학교 음대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프랑스 부페 크람퐁(Buffet Crampon) 클라리넷의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이어지는 곡은 차이코프스키 환상 서곡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반목의 테마와 사랑의 테마가 서로 얽혀 비극적인 색채가 차츰 짙어지며 파국을 향해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차이코프스키 특유의 색채적 오케스트레이션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마지막 곡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멕베스'는 표제음악과 교향시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슈트라우스가 극의 진행이 아닌 등장인물의 성격과 극 전체 분위기를 음악으로 묘사하면서 극의 저변을 흐르는 음산한 공기와 창백한 색조가 사실적으로 담겨져 있는 곡이다.

일시 11월 8일 수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마르티누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 레오스 스바로브스키

피아노 백민정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체코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해온 마르티누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artinu Czech Philharmonic Orchestra)가 11월 9일 부산을 찾는다.

특히 이번 무대는 마르티누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최초 내한 공연으로,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보헤미아의 음악적 전통을 계승한 독특한 감수성을 접할 수 있는 무대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체코 출신의 작곡가 '보후슬라프 마르티누(Bohusjlav Martinu, 1890~1959)'의 이름을 딴 마르티누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패망으로 체코가 해방된 1945년 6월 1일, 체코 즐린(Zlin)시에서 창단되었다. 당시 50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마르티누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창단 이듬해인 1946년 성공적인 첫 무대를 가진 후, 여름휴가 기간 동안 체코의 온천 휴양지로 유명한 루하초비체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정기콘서트가 지역의 전통이 되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초대 지휘자인 루돌프 크바스니카를 시작으로 지금의 수석지휘자 레오스 스바로브스키까지 수많은 상임지휘자를 거치며 체코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마르티누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 외에도 스메타나 국제음악축제, 야나첵 오스트라바, 스필버크 브로노, 프라하 봄 축제, 프라하 뮤직 페스티벌 투어 등 다양한 무대와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을 비롯해 미국 카네기홀 등에서 성공적으로 해외투어 공연을 가진 바 있다. 특히 마르티누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체코 민족주의 작곡가들의 명곡을 포함, 폭넓은 시대를 아우르는 교향곡과 재즈, 샹송 등 대중음악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현재 마르티누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이자 체코의 5대 지휘자로 불리는 레오스 스바로브스키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차세대 피아니스트 백민정의 협연으로 스메타나 '나의 조국' 중 '몰다우',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수석지휘자 레오스 스바로브스키는 프라하 국립극장 발레단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슬로바키아 필하모닉 종신 객원지휘자, 프라하 시립오페라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를 역임했으며 현재 브르노필하모닉 영예 지휘자, 일본 나고야 필하모닉 교향악단 수석 상임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이번 무대에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들려주는 피아니스트 백민정은 지난 2012년 런던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 한국 대표 초청 연주, '2012 City of London Festival' 한인 최초 초청연주를 가졌으며 Worshipful Company of Musicians 금메달, 유럽 베토벤 소사이어티 국제콩쿠르, Emesto Falla 국제콩쿠르, Nuovi Orizzonti 국제콩쿠르, 라흐마니노프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며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날 대극장 로비에서는 체코문화원과 함께하는 체코 문화체험 및 와인 시음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일시 11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노자와 베토벤 '희로애락(喜怒哀樂)' – Ⅳ. 락(樂)

지휘 오충근

철학자 최진석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클래식과 철학의 만남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던 '2017 노자와 베토벤_희로애락(喜怒哀樂)'이 11월 11일 '락(樂)' 무대를 마지막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노자와 베토벤'은 지난 2015년 첫 선을 보인 후 수차례 무대를 통해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클래식을 통해 현 시대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답과 위로를 전하면서 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해왔다. 올해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마련된 '노자와 베토벤'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아우르는 철학사상인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테마로, 철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치유와 공감의 특별한 시간을 선사해왔다.

'2017 노자와 베토벤'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희로애락(喜怒哀樂)'의 마지막 테마인 '즐거움–락(樂)'을 주제로, 한층 무르익은 오충근 지휘자와 철학자 최진석, 그리고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환상적인 호흡을 통해 우리 삶의 행복과 즐거움을 살펴보는 유쾌한 무대를 선사한다. 대중과 소통하는 철학자로 명성이 높은 최진석 교수는 현재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자 인문 · 과학 · 예술 분야 국내 최고 석학들이 모인 인재육성기관인 건명원(建明苑) 초대원장으로, 그동안 삶의 지혜와 인문학적 통찰을 담은 강연 및 저술 활동을 통해 대중과 만나왔다.

공연의 전반부는 체코와 러시아의 민족음악을 대표하는 드보르작과 무소르그스키의 두 명곡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민둥산에서의 하룻밤'으로 꾸며진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는 이역만리 타국에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그린 작품으로, 그가 남긴 9개의 교향곡 중 가장 유명한 교향곡이자 낭만주의 시대의 교향곡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다. 무소르그스키의 '민둥산에서의 하룻밤'은 러시아의 하지(夏至)라고 할 수 있는 '성 요한제'의 전설에서 모티브를 얻어 작곡한 교향시로,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사드코'와 함께 러시아 최초의 교향시 중 하나이자 러시아 특유의 스케일과 박력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걸작이다.

공연 후반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명곡들을 새롭게 감상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다. 영국 제2의 국가로 불릴 정도로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을 비롯해 전 세계인들로부터 가장 유명하고 사랑 받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운명'으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한다. 특히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은 네 음으로 이루어진 유명한 주제 동기로 운명의 문을 연 후 4악장 승리의 찬가로 마무리되면서, 청력상실이라는 역경을 이겨내고 이 위대한 불멸의 작품을 완성해낸 베토벤의 삶을 작품 속에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일시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4회 정기연주회

임헌정과 베토벤

지휘 임헌정

피아노 김태형

지난 6월, 브람스를 테마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췄던 마에스트로 임헌정이 베토벤과 함께 다시 부산을 찾는다.

11월 1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4회 정기연주회 '임헌정과 베토벤'에서는 객원 수석지휘자 임헌정이 지휘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피아니스트 김태형의 협연으로 성숙기에 접어든 베토벤의 독특한 개성을 느낄 수 있는 '피아노 협주곡 제3번'과 베토벤의 모든 작품뿐만 아니라 고금을 망라하여 가장 사랑받고 있는 교향곡 제5번 '운명'을 들려준다.

다양한 음악적 시도로 한국 교향악단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는 지휘자 임헌정은 지난 1989년부터 25년간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이끌며 음악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호암상'을 수상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활동했다. 특히 임헌정은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의 '말러 교향곡 전곡 시리즈'를 통해 국내에 '말러 신드롬'의 열풍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 연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함으로써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문화예술발전유공자로 '보관 문화훈장'(음악부문)을 수상했다. 임헌정은 지난 1985년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후 지금까지 후진양성에도 힘써오고 있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인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은 베토벤이 자신의 청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당시에 작곡된 곡으로, 운명적이며 비창적인 동시에 열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협연자 김태형은 타고난 균형감각과 논리 정연한 해석으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피아니스트로, 일찍이 하바마쓰 콩쿠르와 롱-티보 콩쿠르 입상, 인터라켄 클래식스 콩쿠르, 모로코 콩쿠르, 프랑스 그랑프리 아니마토 콩쿠르에서 연속 우승,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5위, 영국 헤이스팅스 피아노 협주곡 콩쿠르에서 우승과 청중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태형은 영국 로열 필하모닉,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도쿄 심포니, 포르투 국립 오케스트라, KBS 교향악단, 코리안 심포니 등 국내외 유명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었으며, 2013년 트리오 가온을 결성,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 첼리스트 사무엘 루츠커와 함께 유럽을 중심으로 실내악 연주도 병행 중이다.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은 1800년대 초반 여러 걸작들을 쏟아내며 작곡가로서의 명성이 높아지는 반면 귓병의 악화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자연스러워지던 그 당시 탄생된 작품으로, 베토벤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불굴의 투지로써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그의 이념이 잘 표현된 곡이다.

일시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II 금난새 &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 금난새

피아노 유영욱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불멸의 악성(樂聖)'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두 번째 무대가 11월 1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마련되는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에서는 지난 10월 19일 베토벤 교향곡 제1번을 시작으로 매월 총 10회에 걸쳐 내년 6월까지 9곡의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만날 수 있다. 특히 한국이 자랑하는 지휘자 금난새와 그가 음악감독으로 있는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구,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리고 부산 출신의 젊고 유망한 단원들이 함께하며 관객들에게 보다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또, 베토벤 교향곡과 더불어 낭만파 시대의 대표적인 기악 협주곡을 편성, 실력있는 연주자들의 협연무대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금난새 지휘, '한국의 베토벤'이라 불리는 피아니스트 유영욱 협연으로 베토벤 '교향곡 제2번'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이 연주된다. 첫 곡인 '교향곡 제2번'은 베토벤에게 있어서 작품과 삶에 대한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시기였던 동시에 청각 상실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엄청난 절망을 느끼던 1802년 완성된 작품으로, 같은 시기, 운명이 자신을 짓누른다고 느끼며 구상한 교향곡 제5번 '운명'과 달리 베토벤의 복잡한 심리가 위트와 유희적인 에너지로 탈바꿈하면서 교향곡 사상 처음으로 스케르초를 사용, 가볍고 경쾌한 느낌의 작품으로 탄생됐다.

이어지는 곡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은 라흐마니노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슬럼프를 극복하고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준 중요한 작품으로, 작곡가로서 겪었던 좌절과 그에 따른 고뇌, 투쟁과 극복에의 의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2악장과 3악장은 국내외 많은 영화나 드라마, 텔레비전 광고에 삽입되면서 우리에게도 친숙하다. 이번 무대에서는 '건반 위의 지휘자'로 사랑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유영욱의 협연으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는 유영욱은 지난 2007년 베토벤의 고향 독일 본에서 열린 국제 베토벤 피아노 콩쿠르(International Beethoven Competition for Piano in Bonn)에서 '베토벤이 피아노를 친다면 유영욱처럼 연주했을 것이다'라는 심사위원의 극찬을 받으며 우승한 후 그동안 뉴욕 국제 키보드 페스티벌(International Keyboard Festival), 독일 베토벤 페스티벌(Beethoven Festival) 등 해외 유수 페스티벌에서의 초청 리사이틀을 포함해 미국, 유럽, 아시아, 이집트, 레바논 등 전 세계 각국에서 300여회에 달하는 해외 리사이틀 투어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일시 11월 19일 일요일 오후 7: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무용단 제77회 정기공연

댄스 포스_Dance Four's

안무자 박재현

안무자 강용기

안무자 박근태

안무자 김남진

부산의 춤꾼들과 부산시립무용단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부산시립무용단 제77회 정기공연 '댄스 포스_Dance Four's'가 11월 23일과 24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과 전국,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는 부산 출신의 객원 안무자와 부산시립무용단이 만나 다양한 창작무대를 선사하는 이번 무대는 시인 이상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창작한 박재현의 '금홍아 금홍아'와 인생의 고뇌를 춤으로 그려낸 강용기의 '무애행', 오페라 '카르멘'을 춤사위로 표현한 박근태의 '카르멘', 일본군 위안부의 아픈 역사의 이야기를 다룬 김남진의 '또 다른 봄' 등 4인 4색의 다양한 춤판이 펼쳐진다. '댄스 포스_Dance Four's'는 '4인의 안무자에 의한 춤 공연'이라는 뜻 외에도 힘을 뜻하는 '포스(Force)'의 의미도 있어 안무자의 창작 역량을 부산시립무용단을 통해 증폭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재현의 '금홍아 금홍아'는 천재 시인 이상의 연애 기행을 담은 동명의 영화를 소재로, 그 시절 절망적 현실에 대한 불안, 식민지 지식인 의식의 실존적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 안무자 박재현은 제18회 부산 KBS 무용콩쿠르 전체 대상, 크리틱스초이스 2011 평론가가 뽑은 제14회 젊은 무용가 선정, 제3회 문화올림픽 세계델픽대회(세계유네스코 주최) 무용부문 한국대표 및 한국인 최초 은메달(준우승) 수상, 제21회 전국무용제 은상(안무) 및 연기상(개인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라온현대무용단 대표로 있는 강용기는 어디론가 끊임없이 밀려가는 뭇 중생들, 순간 순간마다 짓눌리는 번뇌, 그 속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을 그린 '무애행'으로 관객과 만난다. 강용기는 프랑스 마르세유 호마란 듀익 무용단 단원, 청주시립무용단 현대무용 트레이너를 역임하고 그동안 젊은 예술가 육성프로그램 창작 공작소 평론가상, 2015 서울 국제2인무 페스티벌 최우수작품상, 2014 부산국제무용제 AK21 국제안무가 육성프로그램 우수작품상, 울산무용제 최고연기상 등을 수상했다.

안무자 박근태는 춤추는 무용수로서는 왜소하다 생각해 열망의 대상이었던 '카르멘'을 무대에 재현, 오페라 '카르멘'의 주된 음악으로 신체 콤플렉스에 관한 바람과 집착을 표현했다. 박근태는 2006 전국무용제 금상 및 안무상, 2015 SCF 베스트 그룹상, 2016 서울무용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현대무용단 자유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남진의 '또 다른 봄'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들의 마음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기 위한 창작춤으로, 지옥 같았던 과거의 기억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봄날을 염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표현한 작품이다. 김남진은 2010년 PROTHEATR2010 Moscow festival 최우수작품상, 2014 한국춤비평가협회 주최 BEST 작품상, 2016 한국춤평론가회 주최 춤연기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경성대학교 초빙외래교수, 부산거리예술축제 예술감독, 댄스씨어터 창 대표로 있다.

• 예술감독 김용철

일시 11월 23일-24일 목-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3회 정기연주회

부산한복 Day와 함께하는 제2회 美&樂 페스티벌

지휘 이정필

연출 이범권

국립국악원 무용단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한복의 아름다움과 품격있는 전통음악이 만나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3회 정기연주회가 11월 2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한복 Day와 함께하는 제2회 美&樂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지난해 11월 열렸던 제187회 정기연주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무대로, 조선통신사, 부산광복로축제, 가야문화축제, 부산섬유패션대축제 등을 연출한 모델 시앤티 대표 이범권이 연출을 맡아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전통음악과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이날 무대에서는 부산한복협동조합, 여성사회봉사단체 '나누美인'과 함께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아리랑 멋 태권도 시범단이 출연, 가무악(歌舞樂)의 향연 속에서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화려한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이끄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웅장함과 신명이 넘치는 '북울림'을 시작으로 조선시대 군대 예식과 왕의 행차 등을 통해 전승된 행진음악인 '대취타'를 비롯해 이준호 곡 국악관현악 '축제', 홍동기 곡 '고구려의 혼', 무속음악에서 나온 즉흥성이 강한 기악곡 '시나위' 등 격조있는 궁중음악에서부터 민속음악, 그리고 창작음악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에서는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해 왕비 혹은 왕이 직접 추었던 '태평무'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태평성대'를, 부산시립무용단은 한국춤의 즉흥성을 가장 잘 살린 '신살풀이'를 무대에 올린다. 세계적인 태권도 시범단인 '부산아리랑 멋 태권도 시범단'은 태권도 동작에 아크로바틱, 웨이브, 브레이크, 재즈 등 다양한 동작을 입힌 '태권무'를 관객들에게 소개한다. 지난 2007년 창단한 '부산아리랑 멋 태권도 시범단'은 그동안 방송출연과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태국 등 세계를 돌며 고난이도의 퍼포먼스 무대를 통해 태권도와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부수석 정선희가 기존 판소리에 연극적 재미를 더한 입체창 무대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국악가요 '오나라', '가시버시사랑', '아름다운 나라'를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과 함께 꾸미는 무대로, 춤꾼에게는 장단이 가진 맛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도구이자 춤사위를 힘차게 표현할 수 있는 몸의 일부분이기도 한 악기를 하나의 판으로 독립시켜 멋과 신명을 역동적으로 풀어낸 신명의 춤 '타'를 선사한다.

일시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A석 3만원, B석 2만원(문화가 있는 날 전석 5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콘서트 '오페라 이야기Ⅷ'

지휘 양진모

소프라노 김유진

테너 이승묵

메조소프라노 최승현

바리톤 심정보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해 부산문화회관이 2017년 마련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콘서트'가 11월 3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음악계의 괴물'이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의 깊이있는 해설,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코레아나 클라시카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영산오페라단 예술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양진모의 지휘, 소프라노 김유진, 테너 이승묵, 메조소프라노 최승현, 바리톤 심정보의 협연으로 오펜바흐 '호프만의 이야기', 구노 '로미오와 줄리엣', '파우스트', 비제 '진주조개잡이', '카르멘'의 유명 아리아를 들려준다. 뛰어난 말솜씨와 해박한 지식으로 관객들을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이끌고 있는 조윤범은 현악4중주단 '콰르텟엑스'의 리더로, 지난 2007년부터 극동아트TV(전 예당아트TV)의 '콰르텟엑스와 함께하는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을 진행하며 해설자로 명성을 날렸으며 현재는 라디오 '노홍철의 굿모닝 FM'의 클래식 음악 코너 진행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의 지휘를 맡은 지휘자 양진모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과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시에나 키지아나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그동안 700여 회가 넘는 오페라 무대와 밀라노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불가리아 소피아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교토 챔버 오케스트라, 우크라이나 하라코프 가극장 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경북도립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를 객원지휘한 바 있다. 현재 이탈리아와 한국을 중심으로 오페라, 콘서트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양진모는 알도 체카토 마스터클래스 특별상, 제7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예술상(지휘 부문)을 수상했다.

협연자인 소프라노 김유진은 고태국 콩쿠르 1등 없는 2등, 대구전국성악 콩쿠르 입상, Anselmo Colzani, Schio, G.Martinelli-A.Pertille, 제23회 Maria Caniglia, Mario del Monaco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그동안 솔리스트, 협연자,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테너 이승묵은 제네바 국제콩쿠르, 프랑스 마르멍드 국제콩쿠르, 이태리 술모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현재 국민대학교 전임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써오고 있다. 메조소프라노 최승현은 Tito Gobbi 국제콩쿠르 우승, Rocca delle Macie 국제콩쿠르 2위, Anselmo colzani 국제콩쿠르 3위, Iris Adami corradetti, Giovan Battista Velutti 국제콩쿠르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오페라 주역가수로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바리톤 심정보는 이태리 Crotone 국제성악콩쿠르 2등, 이태리 Racconigi 국제성악콩쿠르 3등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현재 김해코러스합창단 지휘자, 동구여성합창단 지휘자, 동구청직원합창단 지휘자, 양산동부산CC도미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일시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1: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유니온발레단 마술이 있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

예술감독 김정순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는 고전 발레의 걸작 '호두까기 인형'이 올해도 부산무대에 오른다.

12월 2일과 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부산유니온발레단이 환상적인 이야기와 낭만적인 명곡들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마술이 있는 특별한 발레무대로 선보인다. '호두까기 인형'은 크리스마스 전날,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 받은 주인공 소녀 '마리'의 꿈속에서 펼쳐지는 모험과 낭만이 주요 내용으로,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의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와 발레음악의 대가 차이콥스키의 협력으로 탄생했다.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연말 '호두까기 인형'을 무대에 올려온 부산유니온발레단(구 김정순 유니온 발레단)은 그동안 부산지역 발레의 저변확대를 위해 클래식발레와 창작발레를 꾸준히 무대에 올려왔다. 부산유니온발레단을 이끌고 있는 김정순 예술감독은 지난 1981년 부산여자대학교(현 신라대학교)에 부임한 후 열악한 부산지역의 발레 발전을 위해 부산새싹발레단, 뗑브르발레구연구회 등을 창단, 후진 양성과 함께 발레 대중화에 앞장서오고 있다. 이번 '2017 호두까기 인형'은 기존 고전발레의 틀을 깨고 마술사 이광기의 신비한 마술과 벨리댄스, 댄스스포츠, 힙합 등 새로운 안무의 '호두까기 인형'으로 관객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간다. 특히 2012년 스페인 국립무용단에 입단, 현재 수석무용수로 활동하는 김세연과 그녀의 파트너인 스페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에스테반 벨랑가, 그리고 유니버설발레단 솔리스트로 있는 한상이, 단원 이승민 등 실력있는 무용수들이 출연해 무대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발레리나 김세연은 유니버설발레단의 최연소 발레리나로 입단한 후 2004년까지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로 활동하다 이후 스위스 취리히발레단 수석무용수,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세컨드 솔리스트로 활동했으며, 2001년 룩셈부르크 국제발레콩쿠르 2인무 부문 1위, 2002년 프라하 국제발레콩쿠르 솔로부문 2위, 2003년 한국발레협회 프리마 발레리나상을 수상했다. 스페인 마드리드 왕립발레학교에서 수학한 후 누레예브, 맥밀런, 롤랑 쁘띠, 에쉬톤 등 저명 안무가의 작품에 출연하며 영국 평론가상, 영국 올해의 무용가상 등을 수상한 에스테반 벨랑가는 2006년 영국왕립발레단에 입단한 후 주역 무용수로 발레 '백조의 호수', '지젤',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이밖에 발레리나 한상이는 모나코 몬테까를로 발레단,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2002년 미국 잭슨 콩쿠르 동메달, 2004년 미국 뉴욕 그랑프리 콩쿠르 3위, 2004년 서울국제무용콩쿠르 동상을, 발레리노 이승민은 2012년 베를린 국제무용콩쿠르 3위, 2012년 동아무용콩쿠르 동상, 2012년 한국발레협회 콩쿠르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일시 12월 2일 토요일 오후 5:00, 3일 일요일 오후 4: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17 부산오페라WEEK

2017 BUSAN OPERA WEEK

부산오페라단 '오페라 갈라 콘서트'
12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솔오페라단 'Opera La Boheme in Concert'
12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그랜드오페라단 송년 오페레타 '박쥐'
12월 9일 토요일 오후 7:30, 10일 일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21년 완공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고 지역 오페라 육성과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한 '2017 부산오페라WEEK' 무대가 12월 1일부터 부산문화회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지난 4월 작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산오페라단(단장 전연숙)과 솔오페라단(단장 이소영), 그랜드오페라단(단장 안지환)이 참여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제작진이 참여하는 대형 오페라 무대에서부터 오페라 갈라콘서트까지 다채로운 무대로, 오페라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2017년 부산오페라WEEK의 화려한 막을 여는 주인공은 부산오페라단으로, 유명 오페라 작곡가들의 작품을 집중 조명해보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로 관객과 만난다. 지난 1990년 설립된 후 그동안 부산지역 오페라 발전과

부산오페라단 '오페라 갈라 콘서트'

솔오페라단 'Opera La Boheme in Concert'

그랜드오페라단 송년 오페레타 '박쥐'

오페라 관객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온 부산오페라단은 2009년부터 매년 오페라 '라보엠'(2009년), '카르멘'(2010년), '나비부인'(2011년), '춘향전'(2012년), '춘희'(2013년) 등을 무대에 올렸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통해 명작 오페라가 주는 재미와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 연출가 김성경의 연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김봉미의 지휘로 성악가 김유섬, 김재형, 김경, 박대용, 양송미, 김지호, 김경희, 나현규, 김아름 등 국내 정상급 오페라 가수와 UKO오케스트라, 부산오페합창단이 출연,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안드레아 셰니에', '카르멘', '투란도트' 등 명작 오페라의 주옥같은 아리아를 들려준다.

공연 문의 : 부산오페라단(644-1001)

12월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지난해 제2회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오페라 부문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솔오페라단이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을 갈라무대로 선보인다. 매년 12월 세계 오페라극장을 장식하는 단골 레퍼토리인 '라보엠'은 '토스카', '나비부인'과 더불어 푸치니의 3대 오페라로 손꼽히는 작품으로, 그중에서도 가장 선율이 유려하고 극적인 효과를 잘 표현한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푸치니 자신이 직접 겪었던 젊은 날의 가난하고 고달팠던 보헤미안적인 생활을 투영해 더욱 실감이 나는 작품으로, 파리 뒷골목 가난한 예술가들의 일상을 소재로 젊은 날의 사랑과 열정, 고뇌, 그리고 가슴 녹이는 따뜻한 우정을 그리고 있다. 김해시립합창단 지휘자 박지운이 지휘하고 주인공 미미 역의 소프라노 김성은을 비롯해 박은주, 김동원, 한명원, 우주호, 박준혁, 이세영 등 세계 무대를 빛낸 오페라 가수들과 김해시립합창단, 부산오퍼심포닉오케스트라가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그대의 찬 손', '내 이름은 미미' 등 주옥같은 아리아와 아름답고 서정적인 선율, 거기에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인 스토리로 관객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공연 문의 : 솔오페라단(1544-9373)

2017 부산오페라WEEK 마지막 작품으로는 그랜드오페라단의 오페레타 '박쥐'가 무대에 오른다. 12월 9일과 10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선보이는 오페레타 '박쥐'는 왈츠의 황제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남긴 '빈 오페레타'의 걸작으로, 화려한 춤과 음악, 유쾌하면서도 왁자지껄한 분위기, 위트 넘치는 대사들로 매년 연말 송년무대를 장식해오고 있다. 특히 '작은 오페라'라는 뜻을 지닌 '오페레타'는 대개 오늘날의 TV 드라마처럼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루면서 다양한 춤곡과 춤이 엔터테인먼트 요소로 포함되기 때문에 오페라를 어렵게 생각하는 초심자들도 쉽게 오페라를 즐길 수 있다.
독일 오스나브뤽오페라극장의 음악감독 겸 수석지휘자인 안드레아스 호츠를 초청해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마스카니 국제성악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소프라노 박현정을 비롯해 테너 이은민, 김준연, 바리톤 최강지, 윤오건 등 국내 최고 오페라 주역들과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위너오페라합창단, 청성복J발레단이 출연, 춤과 노래, 연기가 한데 어우러지는 오페레타만의 매력을 관객들에게 전해준다.

공연문의 : 그랜드오페라단(853-2341)

※ '2017 부산오페라WEEK' 참가작은 인터파크 티켓(ticket.interpark.com)에서 예매 가능합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11대 상임지휘자 최수열 취임연주회

유쾌한 시작

김원명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교수

지난 1년 8개월 동안 바그너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같이 떠돌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마침내 새 선장을 만나 즐거운 항해를 시작했다. 제532회 정기연주회 겸 제11대 상임 지휘자 최수열의 취임연주회 '유쾌한 시작'이 지난 9월 29일 저녁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앞선 지휘자들을 잠깐 떠올려보면, 1962년 초대지휘자 오태균 이후 4대까지 한국인 지휘자 시대를 거쳐 1989년 마크 고렌슈타인에서 전임 리 신차오까지 약 30년동안 6명의 외국인 지휘자 시대를 거친 바 있다. 이제 30대의 젊은 지휘자 최수열이 다시 한국인 지휘자 시대를 연 것이다.

취임연주회 레퍼토리는 전반부에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후반부에 하이든의 교향곡 제1번 D장조와 R.슈트라우스의 교향시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등 세 곡. 최 지휘자가 근년 현대음악, 특히 윤이상과 R.슈트라우스에 심취해 있었던 만큼 취임 연주회의 대표 메뉴도 R.슈트라우스의 교향시로 정한 듯하다. 3년의 임기 동안 R.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 연주 대장정의 포부를 밝힌 바, 그날은 그 첫 단추를 끼우는 날이기도 했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은 그의 이력이 명불허전임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파가니니, 칼 플레쉬 등 세계 최고 권위의 콩쿠르를 젊은 나이에 석권한 비르투오소는 이제 묵직한 인생의 경륜까지 더해 난곡 중의 난곡으로 알려진 브람스의 기교와 무게를 감당하고도 남았다. 1악장 카덴차와 3악장 일부에서 잠깐의 흐트러짐은 오히려 인간적 온기로 다가왔다. 목가적인 2악장 서두를 장식한 오보에 솔로와 목관 악기들의 아름다운 호흡은 관객들의 감흥을 더해주었다.

하이든의 교향곡 제1번은 필자의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부산 초연이다. 최 지휘자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지난 2012년 한국 초연했던 작품이다. 교향곡의 아버지로 알려진 하이든의 첫 번째 교향곡은 예술적 차원을 떠나 음악사적 의미가 큰 작품으로, 향후 최수열 지휘자의 학구적, 기획적 레퍼토리 구성을 기대하게 한다.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에서 최수열은 취임연주회의 승부수를 둔 것 같다. 마치 회화에서의 세밀화를 보는 듯 곡의 구석구석을 파고들며 민감하게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갔다. 전설적 악동 틸의 못된 장난들, 그리고 인과응보와도 같은 그의 처연한 죽음까지 음악이 줄 수 있는 표현의 역동성을 최고의 단계로 끌어올린 연주였다.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환호했고, 무르익은 분위기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유쾌한 앙코르곡 연주로 이어져 음악적 성찬의 절정에 이르렀다. 최수열은 지휘자들의 의례적 근엄함 대신 자연스럽고 친근한 무대 매너로 관객들을 다소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고, 급기야 앙코르 연주 때 관객들을 모두 일으켜 세우는 쇼맨십까지 발휘했다. 관객들은 별 경험을 다해본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결코 싫어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출발은 상큼하고 성공적이다. 그동안 부산시립교향악단에 드리웠던 먹구름은 시인의 말처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소쩍새의 울음이라 여기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뜻을 모을 때가 된 듯싶다. 약 30년 전 고렌슈타인이 이른 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쿠데타'를 이끌었듯이, 또 20년 전 곽승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으로 관객들을 신선한 충격에 빠뜨렸듯이, 최수열이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다시 한 번 극적으로 도약시켜 주길 우리 모두 기대하고 있다. 민간 오케스트라들 수준이 예전 같지 않은 만큼,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존재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길 바란다.

젊은 신임 지휘자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거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다. 그리고 부산 시민이 된 지휘자 최수열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정희정의 소리로 보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김옥균 클래식음악해설가, 전 MBC PD, 시인

여러 종류의 클래식음악, 그 중에서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페라다. 오페라는 단순히 오케스트라와 성악가의 목소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대, 연출, 발레, 의상 등 예술의 모든 것, 즉 언어예술, 시각예술, 음악예술이 이상적으로 혼합된 종합예술이다. 이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오페라는 감동과 활력을 준다.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나비부인', '라 보엠', '토스카' 등이 세계에서 가장 자주 공연되는 인기 오페라로 꼽힌다. 이중에서도 인기가 더 많은 베르디의 3막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를 새로운 시각으로 공연한 오페라가 바로 부산문화회관의 기획공연 '소리로 보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공연이었다. 성악가들뿐 아니라 목소리가 명품인 국내 최고의 인기 '성우'들도 함께 출연한 이색적인 오페라 공연과 관객들은 처음으로 만나서, 첫인상에 오페라는 어려운 음악이라고 판단하고 외면하는 사람들도 재미를 붙일 수 있고 익숙해지게 된 공연이었다. 부산시민들과 오페라 팬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함께 주었기 때문이다.

'베리어 프리(Barrier-Free) 오페라'라고 명명된 이번 오페라 공연은 오페라 반주를 맡은 오케스트라 피트가 무대 위로 올라와서 반주를 하고, 주연급이 등장해 오페라를 약식으로 공연하는 일종의 축제성 기획공연인 '갈라(GALA) 콘서트'였다. 오페라를 처음 관람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관객의 눈높이에 맞게 리브레토(Libretto-대본)를 재각색한 연출가 정희정 아나운서의 아이디어와 무대진행은 참으로 빛났다. 거기에다 성우 배한성, 이선, 유호환 씨 등의 국내 베테랑 성우들이 동참하여 공연을 더욱 즐겁게 해주었고 그들의 연기에 반한 관객이 더 신이 났었다. 이번 공연은 오페라 한 편에 연극 또는 라디오 드라마 한 편을 덤(?)으로 관람하는 느낌이었다고 할까. 퓨전(fusion)이고 크로스오버(Cross-over)공연이었다. 노래하는 솔리스트들과 합창단들도 다른 오페라 공연보다 연주하기가 힘들었을 테지만 한편으로는 드라마를 연기하듯 즐거웠으리라 생각된다.

관객의 몰입도를 최고치로 끌어 올린 부분이 '비올레타'(소프라노 오미선 씨)와 '제르몽'의 이중창, 이들의 역할을 한 성우들의 목소리 연기가 환상적으로 어우러져 모든 관객과 부산문화회관의 2, 3층 객석에 있는 청소년들까지 숨을 죽이고 감상했다고 하는 감동을 자아낸 2막에서부터다. 그리고 오페라 무대의 컨트롤 타워 프롬프터(prompter)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부산시립합창단의 높은 합창 수준도 칭찬해주고 싶다. 반주를 했던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지휘자 김현수 씨의 해석도 뛰어났고 남자주인공 '알프레도'의 아버지 제르몽 역을 맡았던 부산 출신 성악가 바리톤 박대용 씨의 눈부신 발성과 활약이 이번 공연에서 최고로 돋보였다.

하지만 이런 장르의 공연을 앞으로 계속 선보일 때는 세계무대에 올려도 손색은 없는지, 미비한 점을 점검하길 바란다. 예를 들자면 솔리스트가 아리아를 노래하는 중에 성우의 긴박한 내레이션이나 대사의 오버랩 처리는 오히려 감상을 방해하는 '군더더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수정,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소리로 보는 오페라 토스카, 라 보엠, 나비부인' 등 관객과 친숙한 오페라 무대가 계속 오를 것이다.

오페라와 쉽게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페라 공연을 자주 보러가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쉽지 않다. "난생 처음으로 오페라를 보러 가는데 옷은 뭘 입어야 하죠? 가서 어떻게 관람하나요? 오페라란 뭐고 에티켓이 따로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오는 초보 오페라 관객들한테 이제는 해줄 말이 생겼다. "오페라를 보고 싶으세요? 청바지를 입고 오셔도 되고요, 자막도 힘들게 읽지 않아도 되는 〈소리로 보는 오페라, 베리어 프리 오페라〉를 만나세요!"라고…. 멋지고 유쾌하고 감동적이고 품격까지 있었던 이번 오페라 기획공연을 무대에 올린 부산문화회관 공연관계자들에게도 큰 박수를 보낸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리 –세가지 안전약속'

일 시 9월 13일(수)–12월 31일(일) 화–금요일 오전 11:00,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 (월요일 휴관)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부산문화회관 어린이 전용극장인 '사랑채극장' 개관을 기념해 마련한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은 EBS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 '로보카 폴리'를 무대화한 작품으로, 경찰차 폴리와 힘센 소방차 로이, 영리한 구급차 엠버, 재빠른 헬리콥터 헬리가 팀을 이룬 구조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번에 무대에 오르는 '로보카 폴리–세가지 안전약속'은 교통안전공단,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교육용 뮤지컬로, '뛰뛰빵빵 색깔약속!', '땅이 흔들릴 땐? 기억해! 세가지!', '병균아 비켜라! 튼튼이가 나가신다!' 등 세가지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지진안전, 생활안전에 대해 알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III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

일 시 11월 1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실력파 해외 실내악단들이 전하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실내악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2017 그레이트 챔버 시리즈' 마지막 무대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 연주회'.
지난 1963년 창단된 후 바로크시대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유려한 연주로 국내외 무대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온 텔레만 실내악단은 이번 공연에서 국내에서는 생소한 바로크시대 음악을 중심 레퍼토리로 바흐의 '하프시코드 협주곡', 비발디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을 비롯해 올해 서거 250주기를 맞으며 국내외에서 재조명을 받고 있는 텔레만의 명곡들을 들려준다.
특히 다채로운 무대에서 돋보이는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예별의 협연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음악을 통한 교감의 무대를 펼친다.

소노레플루트앙상블 창단 30년 기념음악회

일 시 11월 1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신형숙 010–2550–0962

플루티스트 이하룡의 제자들로 구성된 소노레플루트앙상블이 창단 3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음악회.
소노레플루트앙상블은 지난 1987년 창단 후 그 이듬해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정기연주회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출연, 부산플루트음악축제, 가톨릭 여름 음악축제,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교류음악회, 부산 대학 플루트 음악축제, 초등음악교육분과 소리사랑연구회 음악발표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소노레(Sonore)'는 라틴어로 물체의 울림소리, 공명을 뜻한다.
지난 30년간 플루트음악에 대한 사랑과 연구로 함께 해온 소노레플루트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플루트와 피아노, 첼로, 성악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무대로, 플루트음악의 아름다움과 하모니를 전해준다.

- 플루트/신형숙, 강미경, 박린가, 구유정
- 피아노/김은실
- 첼로/이재성
- 테너/김영복

제1197회 MBC 목요음악회

닥터스 심포닉 밴드와 함께 하는 힐링음악회

일 시 11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초대(선착순 입장)
문 의 (사)문화도시네트워크 760–1494
닥터스 심포닉 밴드 010–9458–9258

지난 1999년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의사, 치과의사가 주축이 되어 창단한 관악심포닉 밴드 닥터스 심포닉 밴드 초청무대로 마련되는 제1197회 MBC 목요음악회.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각종 의학 관련 행사, 지역축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온 닥터스 심포닉 밴드는 클래식에서부터 재즈, 영화음악, 팝송, 대중가요 등 장르에 관계없이 다양한 곡들을 관악 심포닉 밴드라는 독특한 편성으로 들려주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16차례 정기연주회를 통해 특히 관객들의 호응이 좋았던 곡들을 엄선해 들려준다.

- 단장/조성락
- 지휘/정홍기
- 협연/황희경(피아노)

이일세 무반주 첼로 독주회

일 시 11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따뜻한 음색과 냉철하고 열정적인 음악성으로 주목받는 첼리스트 이일세 독주회.
14세 때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최연소로 입학, 전문연주자과정,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로 졸업한 이일세는 이탈리아 발레타 국제음악콩쿠르 대상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빈 청소년 음악콩쿠르, 이탈리아 로마 국제실내악콩쿠르 등에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서울유라시안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첼로수석, 경희챔버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역임한 이일세는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수석, 부산피아노트리오 멤버,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음악감독으로 있으며 동의대학교 겸임교수, 부산예중고, 브니엘예고, 부산광역시 예술영재교육원 외래교수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을 비롯해 도메니코 가브리엘리, 힌데미트, 가스파르 카사도의 작품을 무반주로 들려준다.

동북아해양수도 부산기원

멜로매니아 제23회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멜로매니아 010–9692–3973

젊은 시절 못다 이루었던 노래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난 1994년 9월, 남성 성악동호회로 출발한 멜로매니아의 23번째 정기연주회.
창단 이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테너 박인수 초청음악회, 회원 환갑기념 독창회, 창립 10주년 가족음악회, 가곡과 성가의 밤, 바다사랑 창단 2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멜로매니아는 지난 2010년에는 서울 멜로매니아를 창단, 매년 정기연주회를 지원해오고 있다.
멜로매니아는 현재 기업인, 의사, 공무원 등 각계에서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는 중견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1~2회 전문 성악인들에 의한 트레이닝을 통해 실력을 쌓아오고 있다.

- 테너/오거돈, 김정민
- 바리톤/한성권, 배태균, 원요한, 송은섭
- 트레이너/박광하
- 피아노/이승윤
- 협연/멜로매니아앙상블

제13회 부산국제茶어울림문화제

일 시 11월 3일(금)–5일(일) 챔버홀, 전시실, 중앙광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사)부산차문화진흥원 809–1551, www.busantea.kr

현대인의 생활 속에 점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茶 문화를 올바르게 전파하고 여유로운 삶을 재발견하기 위해 개최되는 제13회 부산국제茶어울림문화제.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는 황수로 선생의 개막식 주제강연 '미래를 향한 한국 茶 문화'를 시작으로 초의선사 유물 및 응송스님 다구전 '초의선사에게 차를 묻다', 박동춘 교수 강의 및 토크쇼, 정병과 찻그릇, 도예가 4인전 '도공 삼매를 담다', 나전 칠기전 '천년의 꿈을 그리다', 선고다인추모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주요 일정
3일(금) 오후 3:00 챔버홀 개막식 주제강연
3일(금) 오후 4:00 중앙광장 개막식
3일(금) 오후 4:00 전시실 선고다인추모전
3일(금)–5일(일) 전시실 초의선사에게 차를 묻다, 향도구 전시 및 체험관 등 각종 전시
4일(토) 오후 1:00 전시실 박동춘 교수 강의 및 토크쇼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창립 21주년 기념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일 시 11월 4일 토요일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513–4306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문화 정착을 위해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마련하는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지난 2008년 부산파라미타협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제1회 대회를 가진 후 부산의 대표적인 청소년합창제로 자리매김해온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는 지난 8월 예선을 통과한 전국 중·고교 합창단 7개팀이 본선 경연을 펼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대상 1개팀을 비롯해 금상 1개팀, 은상 1개팀, 동상 1개팀을 선정, 시상한다. '파라미타'는 불교 보살의 수행 덕목인 바라밀다(波羅蜜多)의 인도식 표기(범어)로 '어둠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

참가학교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경남), 해연중학교(부산), 부산연합합창단(부산), 아산중학교(충남), 명인중학교(경기), 곡정고등학교(경기), 마산제일여자중학교(경남)

제4회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가곡교실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4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무료
문 의 강학윤 010–9287–6350

테너 강학윤 교수가 지도하는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가곡교실 수강생들이 마련하는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가곡교실 정기연주회.
13명의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 아리아를 비롯해 이태리가곡, 한국가곡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푸치니/오페라 '제비' 중 '도레타의 꿈'
푸치니/오페라 '라보엠' 중 '무제타 왈츠'
카르딜로/무정한 마음
커티스/넌 왜 울지 않고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등 수곡

- 지도교수/강학윤 ● 피아노/주은정
- 소프라노/윤동자, 김순희, 박순희, 박혜정, 서장희, 김보경
- 메조소프라노/임명자
- 테너/박상천, 양수배
- 바리톤/배용, 박인재, 왕순모

부산광역시 여성연합합창단협의회 제15회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5일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광역시 여성연합합창단협의회 010–3833–0621

부산 16개 구군 여성합창단 연합회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여성연합합창단협의회의 2017년 정기연주회.
부산광역시 여성연합합창단협의회는 지난 2002년 창립 이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부산합창제, 인도네시아 위문공연, 민주평화공원 준공식 기념행사,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 축하공연, 부산시 어머니 합창페스티벌, 부산시민의 날 행사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제5회 휘센합창페스티벌 부산경남 본선 우수상, 전국대회 장려상,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2009 코리아 민요부문 금상, 제7회 부산시 어머니 합창페스티벌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 지휘/윤정윤 ● 피아노/이현주
- 사회/이수민

정소윤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11월 5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다양한 색채와 섬세한 감성의 연주'라는 평을 받으며 독주자, 실내악 주자, 교육자로 활발히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정소윤 독주회.
서울대학교 기악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수석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과정 1호로 재학 중인 도미, 클리브랜드 콘서바토리, 인디애나 음악대학에서 최고연주자학위를 취득한 정소윤은 귀국 후 서울대학교에서 '예후디 와이너의 피아노 협주곡 〈Chiavi in Mano〉 분석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서울음대 전체수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다수의 독주회와 협주곡 협연, Piano Festival 초청공연 등 솔리스트로서뿐 아니라 다양한 실내악 레퍼토리를 연주하는 실내악 연주자, 반주자로도 활동 중인 정소윤은 현재 전남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KC대학교와 서울예고, 예원학교, 인천예고, 고양예고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노엘합창단 특별기획연주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칸타타 '다시 복음 앞에!'

일 시 11월 6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황지선 010–8516–9822

지난 1961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학생성가단으로 첫발을 내딛은 노엘합창단(단장 변원탄)이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시작되었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Reformation) 500주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노엘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김강규가 지휘하고 소프라노 남순천, 알토 정옥심, 테너 김성배, 베이스 박찬이 독창자로 서는 이번 무대에서는 멘델스존의 교향곡 제5번 '종교개혁' 4악장, 작곡가 백현주 편곡의 찬송교향곡 4곡이 합창과 함께 연주되며, 고신대학교 이상규 교수의 종교개혁 특강에 이어 피날레 무대에 서는 이번 무대를 위해 특별히 작곡된 백현주 곡 칸타타 '다시 복음 앞에!'가 초연된다.

아트뱅크코레아 기획공연
브람스 서거 120주년 기념음악회

브람스의 눈물

일 시 11월 6일 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매년 신선한 기획력으로 부산시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아트뱅크코레아가 마련한 2017년 기획공연으로, 브람스 서거 120주년을 기리는 기념음악회 '브람스의 눈물'.
첫날인 10월 30일에 이어 둘째날인 11월 6일에는 젊은 신인 호르니스트 강민주, 바이올리니스트 김주영, 부산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 박정희와 바이올리니스트 이은옥, 홍은지, 비올리스트 이성호, 첼리스트 이일세, 클라리네티스트 장재혁 등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들로 구성된 클라리넷 5중주팀이 브람스 실내악의 정수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브람스/바이올린소나타 제3번 라단조 작품 108
브람스/혼트리오 내림마장조 작품 40
브람스/클라리넷5중주 나단조 작품 115

제2회 재부 고교동문 연합합창제

일 시 11월 7일 화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경남여고 수정합창단 010-4872-9568

부산지역 5개 고등학교 동문합창단이 함께하는 제2회 재부 고교동문 연합합창제.
지난 2015년 1회 행사를 시작으로 격년제로 개최되는 재부 고교동문 연합합창제는 실력과 열정으로 뭉쳐진 각 고등학교 동문합창단의 숨은 재능과 애향심을 함께 나누고 합창으로 지나간 학창시절을 회상하는 소통과 화합의 무대이다.

출연
동래여자고등학교 옥샘합창단(지휘/공정배, 단장/윤수자, 반주/진옥선)
금성고등학교 금성하모니(지휘/손욱, 단장/김영철, 반주/김주리)
부산여자고등학교 부산여고 동문합창단(지휘/조현수, 단장/조수자, 반주/김하림)
경남고등학교 용마코러스(지휘/조성빈, 단장/노덕현, 반주/박소미)
경남여자고등학교 수정합창단(지휘/조익래, 단장/김지현, 반주/김은실)

이윤정 오보에 독주회

일 시 11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이윤정 010-2328-8730

타고난 재능과 탄탄한 실력을 가진 오보에 연주자로 호평받고 있는 오보이스트 이윤정 독주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수석졸업 후 도미, 줄리어드 음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윤정은 귀국 후 예술의전당 주최 '유망신예 초청 연주회'를 통해 데뷔무대를 가진 후 금호아트홀 초청 '금요시리즈', 호암아트홀 초청연주 등 다수 독주회와 오케스트라 협연, 실내악 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2005년 문화관광부 주최 광복 60주년 경축 대 음악회에서 국내 오보이스트 가운데 최초로 윤이상의 1991년 후기작 '오보에 협주곡'을 협연하여 현대음악 속에 감춰진 윤이상 음악의 동양적인 멋을 한껏 살려냈다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이윤정은 수원시립교향악단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세종 목관챔버 앙상블 멤버로 활발한 연주활동과 함께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 오보에/이연숙
- 피아노/위원희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3회 정기연주회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II

음악으로 듣는 셰익스피어

일 시 11월 8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신임 상임지휘자 최수열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첫 번째로 마련한 프로젝트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의 두 번째 무대로 마련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3회 정기연주회.
'음악으로 듣는 셰익스피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슈트라우스가 최초로 시도한 첫 번째 교향시인 '멕베스'와 차이코프스키 환상 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독일 낭만파 음악의 선구자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제1번'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의 협연으로 감상할 수 있다.

테너 신재철 제1회 독창회

일 시 11월 8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신재철 010-3884-4623

거현 이엔지건축사사무소 회장이자 부산예술가곡 운영위원장으로 꾸준히 무대에 오르고 있는 테너 신재철의 첫 번째 독창회.
신재철은 그동안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 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협연무대를 비롯해 서울 영산아트홀, 꿈의숲 아트홀 연주, 금정문화회관 3인 연주회, 영도문화예술회관 초청연주회, 부산시립과학관 초청음악회, 비즈니스호텔 자선음악회 등 다수 무대에 선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커티스/날 잊지 말아요
카르딜로/무정한 마음
도니제티/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오 낙원이여'
김동진/가고파 등 수곡

- 피아노/조신미(부산예술가곡 대표)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마르티누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일 시 11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체코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해온 마르티누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공연.
20세기를 대표하는 체코 출신의 작곡가 '보후슬라프 마르티누(Bohusjlav Martinu, 1890~1959)'의 이름을 딴 마르티누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수석지휘자 레오스 스바로브스키의 지휘, 차세대 피아니스트 백민정의 협연으로 스메타나 '나의 조국' 중 '몰다우',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강남길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11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러시아로 유학,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후, 동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반주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국제 하계음악학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마스터클래스를 수료하며 음악적 경력을 쌓은 피아니스트 강남길 독주회.
강남길은 그동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아카데미 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경성대학교 오케스트라, 경남 챔버소사이어티와의 협연 무대를 비롯 러시아에서의 수차례 조인트 리사이틀 및 초청 연주, 독일 다름슈타트 현대음악제 초청 연주, 일본 가와이 초청 듀오연주, MBC 목요음악회 피아노앙상블 연주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지난 2013년 부산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한 강남길은 현재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외래교수, 신라대학교 외래교수, 부산예고에 출강하면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예술의 밤

일 시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320-8341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이 마련하는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예술의 밤'.
지난 1998년부터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익인 재능을 바탕으로 한국무용, 민요판소리, 풍물, 가야금, 서예, 기타연주 등 총 6개팀이 활동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재능기부 및 찾아가는 공연으로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무용, 민요판소리, 풍물, 가야금, 기타연주 등 5개 예술봉사단이 출연, 장르를 넘나드는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김정은 피아노 독주회

일 시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이음기획 02-3453-7700

섬세하고 탄탄한 테크닉과 다채로운 음색, 치밀한 해석을 바탕으로 청중에게 매력적인 소리를 선사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정은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도독, 칼스루에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로버트 슈만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칼스루에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 졸업한 김정은은 한·독 브람스협회 콩쿠르 1위(한국), Young Musicians International Competition 'Citta di Barletta' 1위(이태리), Bradshaw & Buono International Competition 2위(뉴욕) 등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해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김정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세대예술인 AYAF 앙상블, 피아노듀오 OPUS-K 멤버로 관객과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 동아대학교 강의전담 교수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바흐-부조니/샤콘느 라단조
베토벤/소나타 제32번 다단조 작품 111
바르톡/모음곡 작품 14
리스트/메피스토 왈츠 제1번

Turn Toward Busan 부산, 평화를 노래하다
2017 평화물결

일 시 11월 11일 토요일 오전 11:3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일보사 461-4437~8

부산일보사와 (재)부산문화회관이 6·25전쟁 UN전사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하는 추모공연 'Turn Toward Busan_2017 평화물결'.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에 맞춰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부산시립예술단과 '국민성악가' 엄정행,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해금주자 윤해승의 협연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무대를 갖는다.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은 전 세계인들이 지역과 시간의 한계를 넘어 한국전쟁 참전 유엔군의 영령이 잠들어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한국시간)에 맞춰 1분간 묵념과 추모행사를 갖는 것으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같은 시간에 진행되어 오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 노자와 베토벤 '희로애락(喜怒哀樂)' – Ⅳ. 락(樂)

일 시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클래식과 철학의 만남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던 '2017 노자와 베토벤_희로애락(喜怒哀樂)' 마지막 무대.
'2017 노자와 베토벤'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희로애락(喜怒哀樂)'의 마지막 테마인 '즐거움-락(樂)'을 주제로, 한층 무르익은 오충근 지휘자와 철학자 최진석, 그리고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환상적인 호흡을 통해 우리 삶의 행복과 즐거움을 살펴보는 유쾌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드보르작/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무소르그스키/민둥산에서의 하룻밤
엘가/위풍당당행진곡
베토벤/교향곡 제5번 '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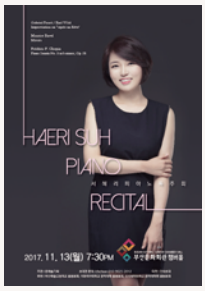
부산가톨릭합창단 제39회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12일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부산가톨릭합창단 010-3850-6153, 010-3586-1938

지난 1982년 3월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라는 시편(88,1)을 모토로 삼아 부산교구 연합 성가대로 창단한 부산가톨릭합창단 정기연주회.
매년 성실한 준비와 열정적인 모습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온 부산가톨릭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인 안토니오 칼다라의 '슬픔의 미사곡(Missa Dolorosa)'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부산가톨릭합창단은 지휘자 이성훈의 새로운 해석으로 재탄생된 칼다라의 음악을 우리나라 바로크 시대 음악을 대표하는 전문연주단체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Camerata antiqua Seoul)'과의 앙상블을 통해 연주함으로써 슬픔의 미사곡만이 줄 수 있는 깊고 거룩한 시간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서혜리 피아노 독주회

일 시 11월 13일 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theYoon 010-9025-2012



무지카비바, CTS 퓨전앙상블 멤버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서혜리 독주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도미,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최고연주자과정과 박사과정을 이수한 서혜리는 월간음악콩쿠르, 부산음악협회콩쿠르, 음악교육위원회콩쿠르, 코리아헤럴드콩쿠르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재학 당시 콘체르토콩쿠르 우승으로 이화여대 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 실기수석 졸업으로 조선일보 신인음악회 무대에 서기도 했다.
실내악에서도 탁월한 재능을 보여 실내악 연주자로도 국내외 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서혜리는 지난 2013년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솔로 및 앙상블 연주활동을 가져오고 있으며, 현재 동아대학교 강의 전담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프로그램
포레/꿈을 꾼 후에
라벨/거울
쇼팽/피아노 소나타 제3번 나단조 작품 58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50회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14일 화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국가유공자, 장애인, 청소년, 단체 10인 이상 50% 할인)
문 의 (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626-8081

을숙도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난 1996년 학연과 지연을 초월한 유능하고 열정있는 연주자들로 창단된 법인예술전문교향악단인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대형오페라 연주, 도시락 보내기 등 자선음악회, 공기관위탁 초청연주, 시민을 위한 순회 야외음악회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통해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동의대학교 윤상운 교수의 지휘, 동아대학교 이명진 교수의 첼로협연으로 늦가을에 어울리는 클래식명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로시니/'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서곡
생상/첼로협주곡 1번 가단조 작품 33
비제/교향곡 제1번 다장조
● 지휘/윤상운 ● 협연/이명진(첼로)

(주)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하는
제26회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 자선음악회

일 시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재)마리아수녀회 250-5406~10

지난 1989년 (재)마리아수녀회가 운영하는 '소년의 집'이 미사 반주를 위해 결성한 현악합주단에서 시작된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의 26번째 자선음악회.
창단 2년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는 1991년 창설자 소 알로이시오 신부의 뜻에 따라 제1회 자선연주회를 시작으로 수많은 무대에 서왔으며, 일본순회공연, 사라 장과의 협연, 멕시코 대통령궁 공연, 마에스트로 정명훈, 젊은 지휘자 정민과의 만남을 통해 최고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로 거듭나게 되었다.
2010년 꿈의 무대인 카네기홀 공연을 성공적으로 가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한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는 그 해 10월, 제26회 부산광역시 '자랑스런 시민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지휘/다니엘 S 김
● 소프라노/강혜정 ● 테너/정의근

이기묘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 시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이기묘 010-3361-0612

현재 뉴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기묘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Soloist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이기묘는 부산신포니에타 단원, KNUA(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챔버 앙상블 단원으로도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러시아 Moscow Tchaikovsky Conservatory 학생들과의 연합오케스트라 연주에 한국대표 단원으로 선발되어 러시아 및 한국 순회연주를 가졌다.
이기묘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연주자로서뿐만 아니라 부산예술고등학교, 부산예술중학교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비에니아프스키/마주르카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사장조 제8번 작품 30
프랑크/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

윤지은 피아노 독주회

일 시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더 클래시코 010-5424-7251

다채로운 연주와 감성짙은 터치로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윤지은 독주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한 후 도미,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일리노이대학교에서 연주 및 문헌 박사학위를 취득한 윤지은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학구열과 연주실력으로 유수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귀국 후 부산연주자클럽 초청 독주회를 비롯 축제, 고독, Romantic Ballades, Fantasy 등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한 독주회를 통해 많은 호평을 받은 윤지은은 현재 노을트리오, 모던 앙상블 '여백'의 피아니스트로, 정상급 연주자들의 리사이틀 피아니스트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프로그램
스카를라티/소나타 마장조 K.162,
베토벤/소나타 내림마장조 작품 81a '고별'
슈만-리스트/헌정
라흐마니노프/악흥의 한때 작품 16 등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4회 정기연주회
임헌정과 베토벤

일 시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한국을 대표하는 마에스트로 임헌정의 객원 지휘로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4회 정기연주회 '임헌정과 베토벤'.
지난 6월, 브람스를 테마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췄던 마에스트로 임헌정은 이번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피아니스트 김태형의 협연으로 성숙기에 접어든 베토벤의 독특한 개성을 느낄 수 있는 '피아노 협주곡 제3번'과 베토벤의 모든 작품뿐만 아니라 고금을 망라하여 가장 사랑받고 있는 교향곡 제5번 '운명'을 들려준다.
다양한 음악적 시도로 한국 교향악단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오고 있는 지휘자 임헌정은 지난 1989년부터 25년간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이끌며 음악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호암상'을 수상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활동해왔다.

금찬이 피아노 독주회

일 시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금찬이 010-2850-6424

신라대학교 예술대학 및 동대학원,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금찬이 독주회.
학창시절 부산음악교육위원회, 신라대학교, 고신대학교 주최 전국학생음악콩쿠르에서 우수 입상하고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주최 Schmolz Bickenbach Preis에서 1위 입상, 연주 및 장학금을 수여받은 바 있는 금찬이는 우크라이나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중국 텐진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등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를 비롯 독일 Logenhaus 초청 듀오리사이틀, 일본 헤이세이음대 초청 교수음악회, 독일 바로크 현대음악축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금찬이는 현재 신라대학교 초빙조교수, 경성대학교, 울산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다.

프로그램
하이든/소나타 내림마장조 Hob. XVI 52, L 62
베토벤/소나타 제17번 작품 31-2 라단조 '템페스트'
쇼핑/발라드 제3번 내림가장조 작품 47 등

한국수력원자력(주)·(재)부산문화회관 사회공헌프로젝트

그린어린이합창단 드림콘서트

일 시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66

'문화소외 없는 부산'을 실현하고자 한국수력원자력(주) 후원으로 (재)부산문화회관이 운영해온 그린어린이합창단이 마련하는 드림콘서트.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재)부산문화회관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탄생한 그린어린이합창단은 지난 7월, 예술교육을 통해 부산지역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행복을 전하고자 창단한 어린이합창단으로, 부산 시내 17개 구·군의 문화소외계층 어린이 2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이건륜이 총 예술감독을 맡은 이번 드림콘서트는 그린어린이합창단 외에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마술사 최현우, 희망을 전하는 팝페라 가수 최성봉이 특별출연해 힘찬 첫 발을 내딛는 그린어린이합창단의 꿈을 응원한다.

임현지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트로싱엔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브람스 함부르크음대 최고연주자과정 및 성악·기악 반주과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임현지 독주회.
오스트리아 Salzburg Mozarteum Summer Academy를 수료한 임현지는 이태리 IBLA Grand Prize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귀국 후 독주회와 TIF 심포니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예원회 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임현지는 현재 부산예술고등학교, 부산시예술영재원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31번 작품 110
히나스테라/아르헨티나 무곡
슈만/카니발 작품 9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II
금난새 & 뉴 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일 시 11월 19일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불멸의 악성(樂聖)'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2017-20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두 번째 무대.
한국이 자랑하는 지휘자 금난새와 그가 음악감독으로 있는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구,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리고 부산 출신의 젊고 유망한 단원들이 함께하며 관객들에게 보다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교향곡과 더불어 낭만파 시대의 대표적인 기악 협주곡을 편성, 실력있는 연주자들의 협연무대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의 베토벤'이라 불리는 피아니스트 유영욱 협연으로 베토벤 '교향곡 제2번'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베토벤 32 피아노소나타 전곡 연주회

일 시 11월 21일(화)-24일(금),
11월 28일(화)-12월 1일(금)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피아노 음악의 신약성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부산지역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로 지난 8월 개관한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을 기념해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 지역의 피아니스트 31인을 초청, 올해로 서거 190주년을 맞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전곡 32곡을 만날 수 있다.

21일(화) 제1번 작품 2-1(연주/권준)
제2번 작품 2-2(연주/심정연)
제22번 작품 54(연주/조혜영)
제23번 작품 57 '열정'(연주/김정권)

22일(수) 제24번 작품 78(연주/류찬미)
제27번 작품 90(연주/서보람)
제8번 작품 13(연주/이경아)
제4번 작품 7(연주/최지은)

23일(목) 제3번 작품 2-3(연주/한상민)
제26번 작품 81a '고별'(연주/김은주)
제12번 작품 26(연주/장서희)
제31번 작품 110(연주/임현지)

24일(금) 제10번 작품 14-2(연주/김영실)
제15번 작품 28 '전원'(연주/서혜원)
제9번 작품 14-1(연주/김병기)
제28번 작품 101(연주/김미현)

28일(화) 제6번 작품 10-2(연주/최윤희)
제7번 작품 10-3(연주/박진영)
제5번 작품 10-1(연주/하승경)
제21번 작품 53 '발트슈타인'(연주/김민정)

29일(수) 제16번 작품 31-1(연주/양진경)
제17번 작품 31-2 '템페스트'(연주/김진희)
제18번 작품 31-3(연주/김정화)
제30번 작품 109(연주/박필은)

30일(목) 제25번 작품 79(연주/장효진)
제11번 작품 22(연주/김문경)
제29번 작품 106(함머클라비어'(연주/주희성)

12/1일(금) 제19번 작품 49-1(연주/김문주)
제20번 작품 49-2(연주/김문주)
제14번 작품 27-2 '월광'(연주/조현선)
제13번 작품 27-1 '환상곡풍의 소나타'(연주/신정운)
제32번 작품 111(연주/심정자)

부산시립무용단 제77회 정기공연
댄스 포스_Dance Four's

일 시 11월 23일–24일 목–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부산의 춤꾼들과 부산시립무용단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부산시립무용단 제77회 정기공연 '댄스 포스_Dance Four's'.
부산과 전국,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는 4인의 객원 안무자와 부산시립무용단이 만나 다양한 창작무대를 선사하는 이번 무대는 시인 이상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창작한 박재현의 '금홍아 금홍아'와 인생의 고뇌를 춤으로 그려낸 강용기의 '무애행', 오페라 '카르멘'을 춤사위로 표현한 박근태의 '카르멘', 일본군 위안부의 아픈 역사의 이야기를 다룬 김남진의 '또 다른 봄' 등 4인 4색의 다양한 춤판이 펼쳐진다.
'댄스 포스_Dance Four's'는 '4인의 안무가에 의한 춤 공연'이라는 뜻 외에도 힘을 뜻하는 '포스(Force)'의 의미도 있어 안무자의 창작 역량을 부산시립무용단을 통해 증폭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예술감독/김용철

KNN과 강림문화재단이 함께하는 제5회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여행
브람스를 아시나요

일 시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초대(KNN 홈페이지에서 초대권 신청)
문 의 KNN 850–9566, 9568

위대한 작곡가들의 숨결을 따라 매년 강림문화재단이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해온 클래식 성찬,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여행 다섯 번째 무대. 올해로 서거 120주년을 맞은 낭만음악의 대표 작곡가 브람스의 작품세계로 떠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이끄는 KNN방송교향악단이 연주하고 바이올리니스트 양고운, 첼리스트 김민지의 협연으로 늦가을 서정에 어울리는 브람스의 곡들로 꾸며진다.
클래식의 메카 베를린필하모닉홀, 빈 무지크페라인 황금홀, 동경예술극장, 프라하 스메타나홀 등 세계적 연주홀에서 한국 지휘자를 각인시킨 부산 출신의 지휘자 오충근은 현재 KNN방송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으로 있으며, 제9회 KNN 문화대상(문화예술 부문), 제48대 난파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고운은 그동안 뮌헨심포니커, 모스크바필하모닉, 프라하방송교향악단, 영국더비필하모닉, 영국첼튼햄심포니, 비엔나모차르트오케스트라, 북경중앙오케스트라, 상해필하모닉,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천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등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졌으며, 파가니니 국제콩쿠르 입상, 베를린 막스 로스탈 국제콩쿠르 1등, 티보 바르가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입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현재 계명대학교 교수, 금호 아시아나 솔로이스츠, 앙상블 오푸스 멤버로 활동중인 첼리스트 김민지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콩쿠르 1위 및 난파콩쿠르, KBS 신인음악콩쿠르 대상, Astral Artistic Services National 오디션 우승 및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우승과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스페인 레이나소피아오케스트라 부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프로그램
브람스/대학축전 서곡 작품 80
브람스/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작품 102
브람스/교향곡 1, 2, 3, 4번
브람스/헝가리 무곡 1, 2, 4, 5번

● 예술감독, 지휘/오충근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양고운, 첼리스트 김민지

김은경 클라리넷 리사이틀

일 시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초대
문 의 김은경후원회 010–9073–1279

낭만적인 감수성과 음색을 가진 영리한 연주자,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발성을 지닌 클라리네티스트'라는 호평을 받는 클라리네티스트 김은경 독주회.
서울대학교 기악과와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KA, KW),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AD)를 졸업한 김은경은 서울클라리넷앙상블, Yamaha 클라리넷 퀄텟 Players 멤버로 활동하며, 금호 영아티스트 리사이틀, ICM Festival, 일본 클라리넷협회 실내악 초청연주, The Mendelssohn Houses in Berlin 초청연주, Denzlinger Kulturkreis 영아티스트 선정 및 초청 연주, 대관령 국제음악제, Pan Music Festival, 통영윤이상 국제음악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독일 Duisburg Philharmonie을 비롯해 해외 유수 오케스트라의 객원단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기도 한 김은경은 현재 국민대학교, 수원대학교, 선화예술학교에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화승 사회공헌프로젝트 '날개를 펴다'

일 시 11월 26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0~2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이 부산의 대표기업 화승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무대 '날개를 펴다'.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앙상블 '더 날개'와 부산시립교향악단 '매직 브라스가 함께하는 무대로, 전문음악인으로서의 진로를 모색하는 앙상블 '더 날개' 단원들에게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전문적인 멘토링을 제공하고, 합동연주를 통해 장애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앙상블 '더 날개'는 2016년 발달장애인(자폐, 지적장애)을 전문음악인으로 양성, 발달장애인의 문화 향유 활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 및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의 목적으로 창단된 후 꾸준히 연주무대에 서오고 있다.

제20회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27일 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예솔기획 010–4909–7444

1993년 경성대학교 임병원 교수와 그의 제자들로 창단된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공백기를 마치고 지난 2010년 해운대문화회관 초청연주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한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는 그동안 19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협주곡의 밤, 청소년해설음악회, 기업방문음악회, 가정음악회, KBS, MBC의 방송출연 등 수많은 연주회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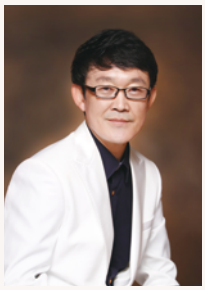
프로그램
생상스/오라토리오 '대홍수' 서곡 작품 45
비발디/두 대의 첼로, 현과 통주저음을 위한 첼로 이중 협주곡 사단조 RV531
비탈리/샤콘느 사단조
차이콥스키/현을 위한 세레나데 다장조 작품 48

● 예술총감독/임병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3회 정기연주회

부산한복 Day와 함께 하는 제2회 美&樂 페스티벌

일 시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A석 3만원, B석 2만원
(문화가 있는 날 전석 5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한복의 아름다움과 품격있는 전통음악이 만나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93회 정기연주회 '부산한복 Day와 함께하는 제2회 美&樂 페스티벌'.
조선통신사, 부산광복로축제, 가야문화축제, 부산섬유패션대축제 등을 연출한 모델 시앤티 대표 이범권이 연출을 맡아 한복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전통음악과 어우러지는 특별함을 선사할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한복협동조합, 여성사회봉사단체 '나누美인'과 함께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아리랑 멋 태권도 시범단이 출연, 가무악(歌舞樂)의 향연 속에서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화려한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뮤지컬 갈라콘서트 '레미제라블(Les Miserables)'

일 시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5~6

정통 합창음악에서부터 창작합창, 가요합창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합창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부산시립합창단이 선사하는 색다른 합창음악, 뮤지컬 '레미제라블' 갈라콘서트.
뮤지컬 '레미제라블(Les Miserables)'은 '캣츠', '오페라의 유령', '미스 사이공'과 더불어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로,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레미제라블'은 프랑스어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한 '장 발장'의 이야기와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한 혁명정신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애를 그리고 있다.
1985년 10월 8일 런던 바비칸극장에서 첫 선을 보인 후 큰 성공을 거두며 세계 무대에 진출한 '레미제라블'은 1987년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후 지금까지 43개국 309개 도시에서 22개 국어로 공연되는 등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개봉한 영화 '레미제라블'은 뮤지컬 영화로는 드물게 국내관객 500만 명이 넘는 대흥행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 '레미제라블'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진이 지휘하고 부산페스티벌 오케스트라(BFO)의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레미제라블'의 주옥같은 넘버를 선정, 오케스트라 반주와 합창곡으로 편곡해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스토리가 있는 합창 공연으로, 연주와 함께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 발장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치 뮤지컬 한편을 직접 관람하는 듯한 느낌을 관객들에게 전해 준다.

프로그램

Prologue, Look Down, At the End of the Day, I Dreamed a Dream, Who am I?, Master of the House, Stars, Do You Hear the People Sing?, In My Life, A Heart Full of Love, On Day More, On My Own, Drink with Me, Bring Him Home, Turning, Epilogue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 콘서트 '오페라 이야기 Ⅷ'

일 시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해 부산문화회관이 2017년 마련한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웰빙콘서트'.
'음악계의 괴물'이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의 깊이있는 해설,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코레아나 클라시카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영산오페라단 예술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양진모의 지휘, 소프라노 김유진, 테너 이승묵, 메조소프라노 최승현, 바리톤 심정보의 협연으로 오펜바흐 '호프만의 이야기', 구노 '로미오와 줄리엣', '파우스트', 비제 '진주조개잡이', '카르멘'의 유명 아리아를 들려준다.

2017 부산오페라WEEK

부산오페라단 '오페라 갈라 콘서트'

일 시 12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부산오페라단 644-1001

2021년 완공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고 지역 오페라 육성과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한 '2017 부산오페라 WEEK' 일환으로 열리는 부산오페라단 '오페라 갈라콘서트'.
이번 무대는 유명 오페라 작곡가들의 작품을 집중 조명해보는 무대로, 오페라 연출가 김성경의 연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김봉미의 지휘로 성악가 김유섭, 김재형, 김경, 박대용, 양송미, 김지호, 김경희, 나현규, 김아름 등 국내 정상급 오페라 가수와 UKO오케스트라, 부산오페라합창단이 출연,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안드레아 셰니에', '카르멘', '투란도트' 등 명작 오페라의 주옥같은 아리아를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유니온발레단 마술이 있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

일 시 12월 2일 토요일 오후 5:00,
3일 일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환상적인 이야기와 낭만적인 명곡들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산유니온발레단의 마술이 있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
이번 무대에서는 기존 고전발레의 틀을 깨고 마술사 이광기의 신비한 마술과 벨리댄스, 댄스스포츠, 힙합 등 새로운 안무의 '호두까기 인형'으로 관객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간다.
특히 2012년 스페인 국립무용단에 입단, 현재 수석무용수로 활동하는 김세연과 그녀의 파트너인 스페인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에스테반 벨랑가, 그리고 유니버설발레단 솔리스트로 있는 한상이, 단원 이승민 등 실력있는 무용수들이 출연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일 시 9월 8일(금)–12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6:00 초콜릿팩토리
입장료 전석 5만원(대학생·청소년 40%, 직장인·아동동반 30% 할인)
문 의 초콜릿팩토리 621–4005

지난 1948년 국내 초연 무대를 가진 후 올해로 상연 70주년을 맞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예술은 공유다' 프로덕션만의 특별한 무대로 선보이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연극적 무대와 오페라 음악을 접목해 색다른 무대로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오페라 가수의 노래만으로 작품을 이해해야 했던 기존 오페라 무대와는 다르게 극 중 두 명의 배우가 주인공 또는 변사, 관객이 되어 관객을 이야기 속으로 안내하고 직역된 가사가 아닌 우리의 정서에 맞는 윤색된 가사를 자막으로 처리,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다.

- 총괄PD/심문섭 ● 음악감독/양승엽
- 출연/왕기헌, 정혜리, 김서영, 양승엽, 장지현, 정성조, 김보우, 정승화, 윤풍원, 박훈기, 김륜호, 국민용, 양지웅, 변은지, 전자연
- 피아노/김경미, 김현정, 조은지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 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1일(625회) 하승경 독주회

서울대학교와 미국 인디애나 음대 석사,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 국내외 유명 음악가들의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하며 음악에 대한 깊이와 완성도를 넓혀온 피아니스트 하승경 독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의 '이탈리안 콘체르토 바장조 BWV. 971'을 비롯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다단조 작품 13' 등 늦가을 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곡을 들려준다.

8일(626회) 황남용 클라리넷 독주회
다양한 독주회 및 실내악 공연으로 음악적 역량을 넓히며 음악적 발전을 위해 쉼없이 노력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황남용의 무대로, 피아니스트 김진희, 바이올리니스트 고아라와 함께 아름다운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15일(627회) 정은정 피아노 리사이틀
각종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으며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 및 다양한 연주활동으로 음악적 깊이를 더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정은정 독주회.

22일(628회) Ars with Friends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 서은아, 비올리스트 이성호, 첼리스트 하경희로 구성된 아르스 현악4중주단과 하피스트 박진경, 클라리네티스트 장재혁, 플루티스트 이화영, 피아니스트 조현선이 함께하는 무대로, 다양한 매력을 지난 악기들의 아름다운 앙상블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Ars with Friends'.

프로그램
그리그/현악 4중주 작품 27
프랑크/피아노 5중주 바단조 등

29일(639회) 전장수, 배윤진 기타 듀오
'가슴이 뜨거운 연주자'라는 호평을 받으며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장수와 체코 브르노 콘서바토리 최고연주자 과정에 있는 배윤진의 기타 듀오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테오르보 연주자 곽승웅의 협연으로 기타만의 깊고 애잔한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F. 소르/Duo in La
스카를라티/소나타 사장조 등

絃의 祝祭 일곱 번째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공연
가야금·고쟁·거문고 '弄絃同音'

일 시 11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전석 1만원(경로, 학생, 장애인 50% 할인)
문 의 일파가야금합주단(582–9119)

지난 1996년 4월 창단된 후 부산 지역의 특성을 살린 레퍼토리 개발과 이해하기 쉬운 연주로 대중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일파가야금합주단이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絃의 祝祭' 7번째 무대.
현재 장혜숙 단장을 중심으로 20여 명의 가야금 연주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일파가야금합주단은 이번 무대에서 한·중 수교 25주년을 축하하며 각국의 대표적인 현악기인 가야금과 고쟁이 어우러지는 이준호 위촉초연곡 '그리움'을 비롯해 고쟁독주, 가야금3중주, 가야금병창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해설/장명화(동아세아 민족음악 교류회장)
- 출연/장혜숙(가야금), 팽려영(고쟁, 중국 길림사범대학교 교수), 부산가야금병창보존회 외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은 & 피아니스트 최영민 듀오 콘서트

일 시 11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서울대학교와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Graduate Certificate 과정과 Artist Diploma를 올해 5월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은과 부산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최영민이 함께하는 듀오 무대.

프로그램
브람스/스케르조 from F.A.E 소나타
베토벤/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작품 30
최영민/Nocturne·야상곡(2016) 등

신현희 피아노 독주회

일 시 11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신현희 010–2732–5036

고신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아헨국립음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신현희 독주회.
신현희는 그동안 독주회를 비롯해 고신대학교 신춘음악회 및 정기연주회, 제5회 한국음악협회 신인음악회, 고신대학교 음악과 교수음악회, 독주회, 경남듀오협회, 부산음악협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중국 등에서도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다.
신현희는 현재 고신대학교 음악과,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며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작품 27 제1번
드뷔시/판화
스메타나/체코 민속음악에 의한 판타지

정상급 성악가와 함께하는 SOLACIELO 성악연구회 창립음악회

위대한 예술가의 열정

일 시 11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 의 Solacielo 성악연구회 010-2330-0994

바리톤 오세민을 초대 회장으로, 부산을 비롯한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성악가들로 구성된 SOLACIELO 성악연구회 창립음악회 '위대한 예술가의 열정'.
아나운서 김세희가 진행하고 무용가 최수진, 어린이 영어뮤지컬 극단 '꿈꾸는 아이'의 특별공연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로시니, 베르디, 구노, 차이콥스키, 도니제티, 벨리니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로 관객과 만난다.

- 소프라노/박현진, 김유정
- 테너/서훈하, 문한솔
- 바리톤/오세민, 정승화 ● 베이스 최현욱
- 베이스 바리톤/양종근 ● 피아노/박은정, 김란

뉴프라임오케스트라 제32회 정기연주회

신세계로부터

일 시 11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뉴프라임오케스트라 550-6611, 010-3842-1133

지난 2006년 창단된 후 젊은 오케스트라다운 패기와 열정,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사운드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뉴프라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07년 6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대종상 영화제 개막식 연주, 부산바다축제를 위한 열린음악회, 울산UBC 방송국 10주년 기념 음악회, 국제신문 유콘서트, 울산시교육청 찾아가는 방과후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무대에 서 온 뉴프라임오케스트라는 특히 2007년, 2011년, 2012년 베트남 하노이 국립오페라극장에서 베트남 국립오케스트라와 함께 '한국, 베트남 수교 기념음악회'를 지속적으로 가져오면서 음악을 통한 해외 문화교류에도 앞장서오고 있다.

- 지휘/임준오 ● 작곡/조희주
- 트롬본/난죠 토모에(울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러브 영도와 함께하는 부산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19회 정기연주회

팬텀싱어즈 오페라 Vs 뮤지컬

일 시 11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1층 2만원, 2층 1만원
문 의 우리아트 920-9545

지난 2007년 열정과 도전의식을 가진 지휘자를 중심으로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음악인들이 창단한 부산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창단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참신하고 폭넓은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부산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의 성악가들과 함께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를 들려준다.

- 지휘/손명균
- 소프라노/장은녕, 이지은
- 테너/조윤환 ● 바리톤/윤오건
- 베이스/박상진 ● 바이올린/김현우

2017 젊은 연주가 시리즈 III

리스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 갈라콘서트 IN BUSAN

일 시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1층 3만원, 2층 1만5천원
문 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5663

'제11회 리스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최종 2위를 기록한 라이징스타 홍민수를 비롯해 1위 알레산더 울만, 3위 디나 이바노바 등 최종 파이널리스트 3인이 펼치는 갈라콘서트.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중 도독, 데트몰트국립음대에 재학 중인 홍민수는 2011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4위 및 특별상을 수상하고 클라라 하스킬 국제 피아노 콩쿠르 준결승에 진출한 바 있다. 알렉산더 울먼은 맨하탄 국제 음악 콩쿠르, 2011 부다페스트 리스트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디나 이바노바는 리스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바이마르-바이로이트) 2위, 폴란드 파데레프스키 콩쿠르 Honorary Mention Prize를 수상했다.

2017 제15회 부산페스티발기타 앙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초중고생 5천원)
문 의 부산페스티발기타앙상블 010-5198-0074

부산 유일의 기타 오케스트라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페스티발기타앙상블의 15번째 정기연주회.
6중주, 솔로, 2중주 연주가 펼쳐지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상임지휘자 김경태, 부지휘자 김현아의 지휘로 앙상블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주제곡으로도 유명한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을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과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 지휘/김경태, 김현아
- 협연/유지훈(클라리넷)

동의대학교 현악앙상블 with '더날개' 앙상블

일 시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 의 M&M 성악연구회 010-4434-6605

발달장애인(자폐,지적장애)을 전문음악인으로 양성, 발달장애인의 문화 향유 활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 및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의 목적으로 창단한 '더날개' 앙상블과 동의대학교 현악앙상블이 함께하는 무대.
음악감독으로 있는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를 비롯해 지휘자 박광식, 손호상, 바이올리니스트 신유정, 플루티스트 신은주, 김소위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앙상블 '더날개'와 동의대학교 현악앙상블이 함께 모차르트 '세레나데', 더날개를 위한 '고향의 봄',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happy birthday variation 등을 함께 연주하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동의대학교 현악 앙상블이 몬티의 '차르다시', 레스피기의 '고풍적 무곡과 아리아' 등을, 그리고 마지막 곡인 '아리랑 메들리'는 '더날개' 앙상블과 함께 들려준다.

제6회 바리톤 고봉수
with 가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을 음악회

일 시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 의 M&M 성악연구회 010-4434-6605

바리톤 고봉수와 그가 지도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경헌 실버 아카데미 가곡반,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가곡반, 금정점 E-mart 가곡반, 해운대 시립도서관 가곡반, 해운대 노노 실버합창단, 해운대 장산노인복지관 청춘합창단이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

바리톤 고봉수는 이태리 삐아첸짜 국립음악원 'G. Nicolini' 성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해운대 노노 실버합창단, 해운대 장산노인복지관 청춘합창단 지휘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각 가곡교실 수강생들, 합창단의 무대와 소프라노 신정순, 트럼펫터 드미트리 로카렌코프의 연주가 함께 펼쳐진다.

● 피아노/권선경, 강수민

2017 부산·후쿠오카 국제 창작곡 교류발표회
현(絃)을 위한 세레나데

일 시 11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작곡가협회 010-4550-1299

지난 1983년 창립 후 그동안 창작곡 발표회를 비롯해 창작곡집 출판, 음반 출반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쳐온 부산작곡가협회가 올해로 부산과 자매도시 체결 10주년을 맞는 후쿠오카의 음악인들과 함께하는 창작곡 교류발표회.

'현을 위한 세레나데'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 후쿠오카 작곡가들의 창작곡을 양국의 연주자들의 앙상블 무대로 감상할 수 있다.

● 사회/강영화
● 작곡/강영화, 권유미, 김수정, 니노미야 츠요시, 도조 미와, 정수란, 조희주, 태미
● 연주/이지혜(가야금), 권은영, 김준영(거문고), 하정희(장구), 김성숙, 최민경(피아노), 나카자와 사오리, 사코다 카이(바이올린), 후쿠다 미치코(비올라), 니시마키 카나코(첼로)

아토 프렌즈와 함께하는 앙상블 아토 제3회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19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및 예술인패스 소지자 50% 할인)
문 의 앙상블 아토 010-7640-4240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고 실력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현악 8중주단으로, 지난 2016년 3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무대를 통해 풍성한 울림을 선사하고 있는 앙상블 아토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남가영, 권순지, 비올리스트 정희경, 첼리스트 박예리나, 더블베이시스트 정준용이 함께하며, 서울신포니에타 초빙수석 정준수, 울산시립교향악단 단원 김기량 등 두 첼리스트의 협연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엘가/현을 위한 세레나데 마단조 작품 20
헨델/두 대의 첼로를 위한 소나타 사단조 HMV 393 등

● 단원/손은혜, 정아람(바이올린), 탁서연, 오현진, 김기량(첼로), 김가민, 윤솔샘(비올라)

최민경 피아노 독주회

일 시 11월 20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 의 최민경 010-9496-2687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트로씽엔 국립음대 피아노 석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최고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최민경 독주회.

음악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아는 연주자로 청중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는 최민경은 현재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부산예술고등학교 강사로 있으며 라온 피아노 소사이어티 대표,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회원, 작곡그룹 An-ti Stimmung 연주회원, 은항교회 호산나 찬양대 반주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성애&이현욱 듀오 콘서트
피아노, 발레하다!

일 시 11월 20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이성애 010-3596-7367
이현욱 010-8502-4620

발레음악을 통해 피아노의 색다른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 이성애, 이현욱의 듀오 무대.

그동안 다수 무대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이성애는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콩쿠르 전체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피아니스트 이현욱은 피아노 블러바드 창단멤버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제6회 Osaka International competition에서 1등 없는 2등 및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관객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무대에서는 차이콥스키, 스트라빈스키, 프로코피예프의 유명 발레곡을 피아노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테너 박재화 독창회

일 시 11월 20일 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초대
문 의 박재화 010-7152-7657

계명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밀라노 G. Verdi 국립음악원, 밀라노 Donizetti 시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계명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테너 박재화 독창회.

유학시절 Giuglietta Simionato 국제콩쿠르 2위, Principessa Cristina Trivulzio di Belgioioso 국제콩쿠르 2위, Rinata 국제콩쿠르 최고성악가상, Citta di Brescia 국제콩쿠르 만토바 시립오페라극장상 및 Ravello Citta della Musica, Terre dei Fieschi, Felice Lattuada 국제콩쿠르 등에서 입상하며 주목받은 박재화는 그동안 바리톤 암브로죠 마에스트리와 친구들, 이태리 Bolzano 시 초청 'Sulle Ali delle Musica Lirica' 음악회, 이태리 Lecco Symphony 오케스트라, 루마니아 바나툴 주립 오케스트라와 협연, Canovacci 페스티발 초청 음악회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 피아노/김아영

제10회 부산광역시 원로음악가회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 의 부산광역시 원로음악가회 010-3122-3970

지난 2008년 척박했던 부산지역의 클래식 음악발전을 위해 초석을 다져왔던 제1세대 음악인과 부산시립교향악단 퇴직단원 등 부산의 원로음악인들로 출발한 부산원로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
지난 2011년 8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 새로이 한 걸음을 내딛었던 부산원로교향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후배 음악인들과 함께 피아노 솔로 및 중주, 바이올린 솔로, 플루트 중주,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이은정, 김성희, 유영욱, 정안선
- 바이올린/오난숙 ● 플루트/장극태, 장정임
- 소프라노/전이순 ● 테너/홍지형
- 바리톤/정승화

오충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30회 프롬나드 콘서트 잔추(殘秋)

일 시 11월 23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상공회의소 홍보팀 990-7090~4

128년 역사의 부산상공회의소에 자리한 역사관 '부산챔버스퀘어'에서 열리는 프롬나드 콘서트는 지역 경제인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오충근 예술감독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로 따뜻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고 있다.
꺼져가는 가을의 끝자락을 아쉬워하며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의 협연으로, 코스마의 '고엽',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등 늦가을 정취에 어울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들려준다.

- 예술감독/오충근
- 협연/양경아(바이올린)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6회 소프라노 신정순 독창회 한국가곡의 향연

일 시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초대
문 의 M&M 성악연구회 010-4434-6605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성악과, 이태리 국립음악원 'G. Nicolini'성악과를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온 소프라노 신정순의 6번째 독창회.
신정순은 그동안 5차례 독창회를 비롯해 MBC목요음악회, 휴음악회, APEC 칸타타 특별연주회 등 600여 회가 넘는 무대와 오페라 '잔니 스키키', '피가로의 결혼' 등 오페라 주역으로 관객과 만나왔으며, 이태리 'G. Poggi' 장학금 콩쿠르 우승 및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김규환/임이 오시는지
윤학중/마중
김효근/첫사랑
조두남/새타령 등 수곡

- 피아노/김아영, 강수민
- 특별출연/바리톤 고봉수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소프라노 윤장미와 함께하는 이탈리아 재즈탱고 듀오 'Pasquale & Gianni'의 피아졸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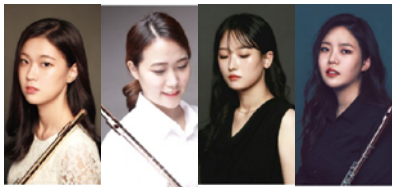
일 시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 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세계 3대 반도네오니스트로 선정되었던 지안니 이오리오(Gianni Iorio)와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한 빠스꽐레 스따파노(Pasquale Stafano), 그리고 소프라노 윤장미가 함께하는 클래식 재즈의 무대.
피아졸라의 음악과 재즈탱고, 그리고 그동안 세 뮤지션의 콜라보로 선보였던 레퍼토리로 클래식 재즈의 세계로 초대한다.

프로그램
피아졸라/사계, 오블리비언
아리랑
카를로스 가르델/간발의 차이(Por una cabeza) 등

뮤토플루트앙상블 제1회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26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 의 뮤토플루트앙상블 010-4383-5557



경성대학교 동문인 플루티스트 김여진, 이정현, 오승은, 강주실로 결성된 뮤토플루트앙상블 창단연주회.
'뮤토(muto)'는 라틴어로 '변화하다, 진화하다'라는 뜻을 지닌 말로, 앙상블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고픈 연주자들의 마음을 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뮤토플루트앙상블은 플루트로 낼 수 있는 풍부한 사운드와 아름다운 앙상블로 관객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S. 야기사와/콜로라투라
A. Fuerstenau/플루트 트리오 작품 118
Reicha/4대의 플루트를 위한 교향곡 등 수곡

IF 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문 의 IF 플루트앙상블 010-3839-1781

2012년 8월 인제대학교 오신정 교수를 중심으로 플루트 전공 재학생, 졸업생들로 구성된 IF 플루트앙상블의 정기연주회.
오신정 교수가 음악감독 겸 리더를 맡아 부산, 경남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오고 있는 IF 플루트앙상블은 그동안 정기연주회 외에도 찾아가기 힘든 소외지역 및 의료시설 등을 찾아 음악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작은 규모의 앙상블 플루트 콰르텟부터 플루트 콰이어의 반주로 연주되는 메르카단테 '플루트 협주곡', 오케스트라 곡을 플루트 콰이어로 편곡한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예탈 조익래 작곡발표회

일 시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 의 조익래 010-9878-7942

부산진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있으며 부산국악작곡가회 회원,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민족음악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회원, 퓨전시나위 예타래 대표, 수정합창단 상임지휘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탈 조익래의 세 번째 작곡발표회.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학과 및 일반대학원 한국음악과(작곡전공)를 졸업한 조익래는 그동안 칸타타, 극음악, 관현악곡, 실내악곡, 동요합창곡, 가야금3중주곡, 정가, 소금협주곡 등 다양한 창작곡을 발표해왔다.

프로그램
퓨전앙상블/예탁계락, 어우락 더불락
소리와 합창/망망한 너른 천지, 달하 노피곰
색소폰 앙상블/변주곡 '옹헤야'
가야금3중주/아라의 춤 등 수곡

● 사회/박시현

연극 '맞짱 연인'

일 시 9월 14일(목)-2018년 1월 1일(월)
평일 오후 5:00,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요일 오후 2:30, 5:00, 7:30
(월요일 휴관)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애의 환상을 확 깨는 걸쭉한 생활밀착형 사랑 이야기 '맞짱 연인'.
연애 5년, 동거 2년, 두 근거림보다는 익숙함이 편한 10년째 개그지망생인 혈기왕성 스물아홉살 한심한과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우먼 서른여섯 노처녀 배신자, 주(酒)님과 만나기만 하면 막장인 배신자의 사라진 기억과 애매모호한 알리바이 때문에 한심한의 의심은 끝도 없이 커져만 가는데….
까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연애하면서 겪는 날것 그대로의 동거라이프가 속시원하게 펼쳐진다.

● 출연/오인환, 한혁, 정라영, 김수령, 허진, 손수경, 남호윤, 고영찬, 오승현, 김재호

연극 '수상한 흥신소 2'

일 시 9월 28일(목)-2018년 1월 1일(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30, 6:30(월요일 휴관)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초연 이후 전국 50만명 이상 관객들을 웃기고 울렸던 대학로 스테디셀러 코미디극 '수상한 흥신소' 2탄 무대.
영혼을 보는 청년 오상우는 영혼들의 이루지 못한 소원을 들어주는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그의 곁을 떠난 짝사랑녀 정윤을 그리워한다. 어느날 여느 때처럼 영혼들의 평범한 의뢰를 해결하던 오상우에게 뜻하지 않은 일로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마는데….
'귀신이 보이는 남자'라는 독특한 설정을 휴머니즘 가득한 서사로 풀어낸 코미디극 '수상한 흥신소'는 제각기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는 영혼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해준다.

창작 부조리극 '옥탑방 두 여자'

일 시 11월 2일(목)-25일(토) 목-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일-수요일, 11/10일 공연없음)
효로민락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극단 새벽 245-5919

임박해 오는 공연 날짜에 초조해 하며 극작에 여념이 없는 두 여자, 작품을 놓고 두 여자는 대화를 시작하지만 두 사람의 토론은 언어의 한계성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고 마침내 연극행위의 한계와 부딪힌다. 과연 두 여자는 무사히 대본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연극 '옥탑방 두 여자'는 마감일을 앞둔 두 사람의 피말리는 극작 일지를 통해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오늘, 이곳에서 연극이 무엇을 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진다.

● 작, 연출/이성민 ● 출연/유미희, 변현주

뮤지컬 '캣츠' 내한공연 in 부산

일 시 11월 3일(금)-19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8:00, 일요일 오후 2:00, 7: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젤리클석 15만원, VIP석 15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월드쇼마켓(1566-5490)

새로운 관객층과 시대에 맞춰 새롭게 변화한 버전으로,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첫 선을 보이는 뮤지컬 '캣츠'.
'캣츠'는 환상적인 군무와 세계적인 명곡 'Memory'를 포함한 아름다운 음악으로 국경은 물론 세대를 뛰어넘어 큰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캣츠'는 안무가 질리언 린의 안무에 변화를 추가해 역동적이면서도 파워풀하게 펼쳐지는 군무와 각 고양이 캐릭터별로 개성을 살려낸 업그레이드된 비주얼, 최고 역량을 갖춘 배우들로 더욱 고양이스러운 '캣츠'의 진수를 선사한다.

뮤지컬 '쇼크'

일 시 11월 4일 토요일 오후 2:00, 5:00, 5일 일요일 오후 3: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1층 3만원, 2층 1만5천원(5세 이상)
문 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기존에 없던 놀라운 스케일의 무대 연출과 환상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멋진 댄스가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뮤지컬 '쇼크(SHOWCK THE MUSEUM)'.
미스터리한 유물들만 가득 모아놓은 박물관에서 유물을 훔치려는 도둑과 유물을 지키려는 경비, 그리고 미스터리한 존재가 얽혀서 벌이는 멋진 한 판 승부를 그린 뮤지컬 '쇼크'는 LED 퍼포먼스, 블랙라이트 가면 퍼포먼스, 일루전 매직을 비롯한 3D레이저 쇼 등 다양한 장르들이 결합해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화려한 무대를 선사한다.

2017 부산가을연극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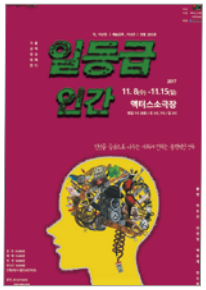
일 시 11월 3일(금)–26일(일)
용천지랄소극장 외 부산지역 7개 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5천원(예매 시 1만5천원),
청소년 1만원
문 의 부산소극장연극협의회 사무국 010–2111–3873

매년 부산소극장연극협의회의 주최로 열리던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이 가을 부산연극을 대표하는 새로운 연극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처음 여는 2017 부산가을연극페스티벌.
부산지역 8개 소극장이 참가한 가운데, 소극장릴레이작품전, 창작낭독무대 본 공연, 가족극 초청공연, 예쮸드 대회, 소극장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극단 자유바다 '달궁맨션 405호 러브스토리'
3일(금)–12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용천지랄소극장
달궁맨션 405호를 배경으로 그 곳에서 살다간 사람들의 만남, 사랑, 이별, 그리고 그리움을 그린 창작극.
● 작, 연출/정경환
● 출연/우명희, 이동희, 김상호, 김창환, 송서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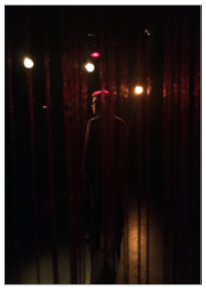
극단 가마골 '나는 깡패입니다'
6일(월)–14일(화)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금, 일요일 공연없음) 한결아트홀
브레히트의 서사극 '서푼짜리 오페라'를 연출가 이윤택이 1960년 초 부산을 배경으로 다시 재구성한 음악극.
1960년 5월 군사혁명 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조직폭력배, 윤락녀, 부랑자 102명이 형 집행을 당한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번 작품은 세상에서 소외된 밑바닥 인생들의 꿈과 사랑, 그리고 배신과 용서를 담고 있다.
● 작/브레히트 ● 각색/이윤택
● 연출/이승헌
● 출연/안윤철, 홍민수, 이혜민, 권혜원, 이미영 외

극단 부두 '일등급 인간'
8일(수)–15일(수)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액터스소극장



2010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인간을 등급으로 나누고 일등을 최고라 치는 사회는 결국 인간성을 파괴시켜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그린 블랙코미디극.
● 작/이난영
● 연출/방도용
● 연출/박호천, 최현정, 방도용, 백용제

극단 B급 로터리 '시급 천만원'
8일(수)–17일(금)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청춘나비아트홀



한시간에 무려 천만원을 벌 수 있는 일명 '시급 천만원' 아르바이트 열풍이 불면서 너도나도 지원자가 몰리지만, 언젠가부터 그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시작하는데…. 인간이 가진 돈에 대한 욕망과 집착에 관해 상상의 나래를 펼친 창작극.
● 작, 연출/김경민
● 출연/국민용, 백지현, 김대현, 김예진, 안인석 외

극단 노마드 '소믈리에, 세 개의 사랑'
14일(화)–23일(목)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레몬트리소극장
남녀가 함께 마시면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벗어날 수 없는 사랑에 빠진다는 브르고뉴의 한 마을에 내려오는 와인에 얽힌 전설을 소재로 2010년대 프랑스와 한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세 개의 사랑이야기.
● 작, 연출/이성섭
● 출연/문상준, 박유진, 배문수, 김성욱

극단 아그라 '꿈의 흥정'
16일(목)–25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열린아트홀
자신과 딸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선택한 미영은 세월이 흐른 후 사회적으로 성공하며 딸과 함께 살 날을 기다리며 사업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지만 비행기 추락으로 무인도에 떨어지고 마는데….
● 작/로빈스 크루소 ● 각색, 연출/김동준
● 출연/박기림, 김용준, 김태원, 지주은

극단 배우창고 '그 여자들, 다시 통닭을 먹다'
16일(목)–25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7:00, 일요일 오후 3:00 나다소극장
통닭가게를 매개로 서민들의 애환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25년 전 한 남자가 집을 떠나면서 남겨진 세 여자의 소박한 일상을 통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 작/강병헌 ● 연출/양지웅
● 출연/윤소희, 정영인, 김선희, 장유빈, 김병철, 외

극단 아센 '메카, 그해 따뜻한 겨울'
17일(금)–26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하늘바람소극장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민작가 아돌 후가드의 '메카로 가는 길'을 각색, 메카의 의미와 우리가 가져야 할 신념과 공존을 이야기하는 작품.
● 작/아돌 후가드
● 각색, 연출/호민
● 출연/구민주, 최진석, 호민

동요콘서트 '구름빵'

일 시 11월 4일 토요일 오후 3:30, 5: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24개월 이상)
문 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신나는 동요와 따뜻한 동화가 어우러진 동요콘서트 '구름빵'.
2004년 출간된 후 전 세계 40만 권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음악극으로 제작한 무대로, 구름빵을 먹고 하늘을 날아 아침을 굶고 나선 아빠의 출근을 도운 홍비와 가장 친한 친구 울리의 모험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준다.
'괜찮아요', '씨앗', '간다 간다' 등 유아음악교육전문가 김성균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신나는 동요와 흥겨운 율동이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집에서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구름빵 만드는 과정을 설명과 율동으로 쉽게 배워볼 수 있다.
● 원작/백희나
● 작곡/김성균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일 시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3:00, 7:30, 12일 일요일 오후 2:00, 6:3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VIP석 13만원, OP석 12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문 의 ㈜월드쇼마켓 1566–5490

국내 초연 21주년을 맞아 역대급 캐스팅으로 돌아온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고품격 뮤지컬의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업그레이드 된 무대로 더욱더 시선을 사로잡는 이번 무대는 경쾌한 탭댄스와 싱크로나이즈드 댄스, 왈츠 안무까지 30여명의 앙상블이 보여주는 칼군무가 관객들을 압도하며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최고연출가 '줄리안 마쉬' 역에 14년 만에 뮤지컬 무대로 컴백한 김석훈과 꽃중년 이종혁이, 매력적인 여배우 '도로시 브록' 역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디바 최정원, 무대를 압도하는 배우 배해선이 맡아 탄탄한 연기력으로 21년 스테디셀러 뮤지컬의 위엄을 확인시켜준다.

2017 어린이 율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호비와 꼬마요정 새미의 모험

일 시 11월 1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2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더욱 화려해진 볼거리와 탄탄한 스토리로 만나는 '호비쇼' 7번째 이야기 '호비와 꼬마 요정 새미의 모험'.
지난 2010년 시즌 1부터 시작해 매 공연 큰 사랑을 받았던 호비쇼는 아이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뮤지컬로 재미는 물론 인성, 사회성, 생활습관 등을 키워 줄 수 있는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작품은 길을 잃은 꼬마 요정 새미의 엄마를 찾기 위해 호비와 친구들이 떠나는 모험 이야기로, 모험 속에서 겪는 다양한 사건들을 지혜롭고 씩씩하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친구와의 우정, 가족과의 유대감과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국민연극 '라이어 튀어!'

일 시 11월 17일(금)-2018년 2월 25일(일)
화-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전석 3만원(11/16일까지 예매시 40%, 학생 50% 할인)
문 의 ㈜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소심한 은행원 영호의 생일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의 서류가방이 야쿠자의 돈가방과 뒤바뀐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집에 들어와 가방을 펼쳐보니 무려 100억 원 상당의 큰 돈과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 야쿠자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영호와 안절부절 못하는 아내, 그를 의심하는 형사, 잠시 잊혀졌던 야쿠자 등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영호를 괴롭힌다. 상황을 무마하려고 시작한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영호를 압박하기 시작한다.
연극 '라이어 튀어!'는 누구나 꿈꾸는 일확천금의 행운과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유쾌하게 담은 작품으로, 다른 시리즈들과 달리 한국을 배경으로 하여 친밀감을 더한다.

뮤지컬 '오! 캐롤'

일 시 11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2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6일 일요일 오후 3: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VIP 13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문 의 ㈜예술기획 성우 1599-1980

팝의 1세대 아티스트이자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 포시즌스와 더불어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팝의 거장 닐 세다카의 희트곡을 뮤지컬로 제작한 '오! 캐롤'.
뮤지컬 '맘마미아!', '시카고'의 뒤를 이은 최고의 쥬크박스 뮤지컬로, 'Oh Carol', 'You Mean Everything to Me', 'One Way Ticket' 등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닐 세다카의 No.1 히트곡 메들리에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랑과 연애에 대한 현실적이고 공감 가능한 스토리로 웃음과 감동을 전해준다.
특히 1세대 대표 뮤지컬 배우 남경주, 서범석, 김선경, 최정원, 임진아 등 그 이름만으로 믿고 보는 국민 뮤지컬 배우들이 총 출동,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억의 무대를 선사한다.

무 용 | Dance

2017 부산브랜드 콘텐츠 선정작

정신혜무용단 'Turn Toward Busan'

일 시 11월 9일-10일 목-금요일 오후 7:30,
11일 토요일 오후 5: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 의 정신혜무용단 999-5301, 010-9315-6502

한국전쟁 유엔군 전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11월 11일, 한국시간 오전 11시를 기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열리는 추모행사 'Turn Toward Busan'를 통해 전쟁의 참화와 평화의 가치를 춤사위로 담아낸 정신혜 무용단 창작춤 'Turn Toward Busan'.
그동안 빼어난 한국창작춤을 발표하며 평단과 관객들의 찬사를 받아 온 정신혜무용단의 20년 역량을 오롯이 담은 역작으로, 남녀무용수의 춤과 소년소녀합창단의 노래, 특수 무대와 특수 영상 및 조명, 홀로그램 등이 어우러지는 입체적인 무대로 감동을 선사한다.
정신혜무용단은 2011년과 2015년에 대한민국무용대상(베스트7)을 두 번이나 수상하는 등 한국의 대표적 민간무용단체로 활동해오고 있다.

최은희무용단 'Ex.il 망명'

일 시 11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중·고등학생 A석 50% 할인)
문 의 최은희무용단 663-4964

부산의 한국 창작춤 텃밭을 일군 대표적인 춤꾼인 최은희 경성대학교 교수와 알레르투르 댄스컴퍼니 예술감독으로 있는 프랑스 안무가 헤수스 희달고의 두 번째 프로젝트 무대 'Ex.il 망명'.
지난 2015년 10월 '눈보라'에 이어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는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에 망명한 세계적인 현대작곡가 윤이상의 작품에 담긴 음악적 공간적 거리가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이 혼합된 4명의 무용수에 의해 춤으로 표현된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클라리네티스트 노르베르트 젠블린의 연주가 무용수들과 어우러지면서 상호간의 조우와 침투를 통해 새로운 시공간, 새로운 문화를 시도한다.

영 화 | Movie

예술의 전당과 함께하는 스크린콘서트

베토벤 교향곡 제6번 '전원'

일 시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초대(전화예매 필수)
문 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넘어 다양한 공연영상을 즐기고 아티스트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은 물론, 객석에서는 볼 수 없는 무대 구석구석과 공연의 흥미로운 뒷이야기까지 엿볼 수 있는 예술의전당과 함께하는 스크린콘서트.
현재 아흔 살 현역 최고령 지휘자로,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계관 지휘자이자 밤베르크 교향악단,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웨덴 방송교향악단 명예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명지휘자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교향악단의 연주로 베토벤의 9개 교향곡 중 가장 서정적인 교향곡으로 손꼽히는 베토벤 교향곡 '전원'을 감상할 수 있다.
창단 70년의 역사를 지닌 밤베르크 교향악단은 요제프 카일베르트 홀의 상주 오케스트라로 활동 중이다.

행 사 | Event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11월 아카데미

일 시 11월 6일(월), 7일(화), 14일(화), 20일(월), 21일(화), 27일(월), 28일(화) 오후 7:30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입장료 전석 1만5천원(음료 포함)
문 의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010-3827-2005, 010-2774-3455

6일(월) 스콧 리들리 감독
영화 '블레이드 러너'와 인간의 조건
● 강사/홍옥숙(한국해양대영어영문학과교수)
7일(화) 열녀의 탄생
● 강사/강명관(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13일(월) 멜로와 공포로 만나는 욕망과 금기
● 강사/주유신(게임영상콘텐츠학과교수)
14일(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하여
알고싶은 두세가지 것들
● 강사/남동철(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20일(월) 짧은 만남, 긴 감동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수상작을 중심으로'
● 강사/이상훈(부산국제단편영화제 프로그래머)
21일(화) 카를로스 사우라감독
영화 '알베니스' 〈이베리아〉
● 강사/정천식(스페인문화연구가, 기타리스트)
27일(월) 인도영화를 보는 두 개의 시선
'마살라영화와 벵골영화'
● 강사/강내영(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부교수)

28일(화) 이성훈의 예술과 사유(14)
'컨템포러리(Contemporary)미술에 관하여'
● 강사/이성훈(예술철학자 북갤러리 내서재 대표)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아름다운 당신에게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 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로,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에서 매주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프로그램
7일(629회) 그리움이라는 음악이야기
14일(630회) 사랑이라는 이름의 음악이야기
21일(631회) 아름다운 당신에게
28일(632회) 이달의 책읽기-'부테스'(파스칼 키냐르 저. 문학과 지성사)

김옥균의 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3:40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월 4만원
문 의 김옥균 010-6367-0149

'MBC FM 목요음악감상회'를 기획 연출한 김옥균(시인, 음악치료사) 전 MBC PD가 진행하는 클래식음악 해설감상회.
내 삶의 휴식과 치유를 위한 클래식음악을 만나는 자리, 영상클래식음악을 알기 쉬운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1강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비교 감상회
2강 지휘자 Riccardo Chailly의 다큐 〈끝없는 여정〉 & 그리그(Grieg)-피아노 협주곡 A단조
3강 유로피안 콘서트 16-Simon Rattle&Berliner Philharmoniker
4강 크로스오버 콘서트-앙드레 류 'FALLING IN LOVE'
5강 클래식음악영화-레드 바이올린(1998년 제작)

전 시 | Display

무지카아트홀
전상철 가곡교실

일 시 11월 20일(월)-12월 12일(화) 매주 월요일 오전 11:00, 화요일 오후 7:30 무지카아트홀
입장료 수강료 7만원(교재비 포함)
문 의 무지카아트홀 010-7191-2878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부산합창연합회 회장, 더뮤직콰이어, 더울림합창단 지휘자, 무지카아트홀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전상철과 함께하는 가곡교실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4차례 진행된다.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24강
바그너의 예술세계와 인생

일 시 11월 14일 화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5천원
문 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김성민의 예술기행 제18강
여행, 음악을 만나다

일 시 11월 23일 목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5천원
문 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색이 삶을 말하다 제8강
색이 사라진 색, 재가 된 열정, 회색(The Grey)

일 시 11월 27일 월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5천원
문 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3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시마당 제177회 시낭송회

일 시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6:30
양정 오성병원 강당
입장료 무료
문 의 회장 안태봉 010-8374-0626

최은정, 원범식 2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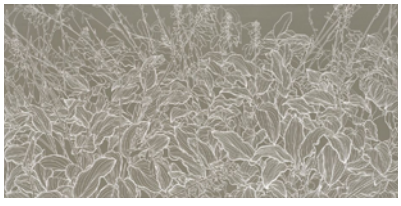
일 시 10월 10일(화)-11월 10일(금) 갤러리 아인
문 의 갤러리 아인 747-2612

티파니 쿠퍼
'LA BOUM:la bum(파티)'展

일 시 10월 25일(수)-12월 3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하상림展

일 시 10월 26일(목)-11월 25일(토)
소울아트스페이스 해운대 전관,
소울아트&필름 인스티튜트랩 1, 2, 3, 4관
문 의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RECORD

GM뮤직 제공

포르테 디 콰트로 리패키지

▶ 2017년 최고의 블루칩으로 급부상한 포르테 디 콰트로의 리패키지 앨범

JTBC에서 진행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 '팬텀싱어 시즌 1'의 우승팀 '포르테 디 콰트로'의 첫 정규앨범 '포르테 디 콰트로' 리패키지 음반이 새롭게 발매됐다. 국내 크로스오버의 새 지평을 열고 있는 '포르테 디 콰트로'는 뮤지컬 배우 고훈정, 테너 김현수, 베이스 손태진, 가수 이벼리로 구성된 남성4중창단으로, 아이돌 시장이 중심인 한국 음악시장에서 고품격 보컬과 하모니를 통해 또 다른 팬덤을 일으키고 있다. '포르테 디 콰트로'는 이탈리아어로 '네 명의 강함', '4중창의 힘'. 해외 크로스오버 유명 작곡가의 신곡과 함께 국내외 유명 가요, 팝 커버곡 그리고 경연곡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로 수록된 정규음반에 방송 경연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Luna', 타이틀 곡인 '단 한 사람'의 이탈리아 원어 버전인 'Tuo Per Sempre', 그리고 영국 '브리튼 갓 탤런트'에서 뛰어난 가창력으로 모든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은 13세 소녀 보 더모트와 함께 부른 'Wings'가 특별 수록되었다. 이밖에 스페셜 보너스 트랙과 함께 지난 1집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 사진, 이탈리아 원곡들의 한글가사와 멤버들의 추가 엽서 등이 이번 앨범에 포함되었다.

실예 네가드 'For You A Thousand Times'

▶ 북유럽 특유의 서정적이고 청아한 감성! 실예 네가드의 15번째 앨범

국내에서도 'Be Still My Heart' 등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는 노르웨이 출신의 팝&재즈 보컬리스트 실예 네가드(Silje Nergaard). 이야기하듯 편안한 분위기로 흐르는 목소리가 매력적인 실예 네가드는 그녀의 고향 노르웨이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의 15번째 앨범 'For You A Thousand Times'는 지난 2015년도 앨범 'Chain Of Day' 이후의 경험과 사유를 담고 있다. 사랑과 희망을 주제로 그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곡되어 마치 일기를 읽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 앨범은 청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스며든다. 특히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For You A Thousand Times'는 우리에게는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 그녀는 이 곡의 영감을 한 사진에서 얻었다. 6 · 25 전쟁으로 인해 이산가족이 되어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살아온 부부가 수십 년 만에 만나 울며 부둥켜 포옹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으로, 어쩌면 한국사람들에게는 익숙해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이 사진에서 그녀는 사랑의 위대함을 느꼈다.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리움 속에 영원의 맹세를 지키며 그 세월을 살았을 것이다. 이야기에 걸맞게 비감어린 키보드 연주를 배경으로 흐르는 그녀의 노래는 그리움과 그에 따른 먹먹함으로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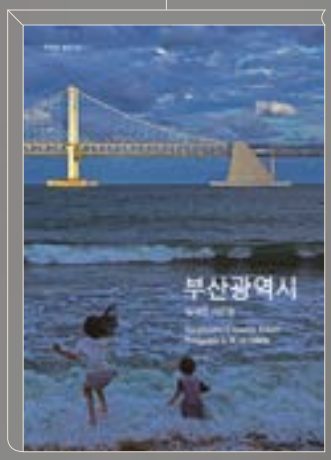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모차르트 오페라 아리아 모음집'

▶ 21세기 최고의 벨칸토 테너가 선보이는 모차르트 오페라 아리아 모음집!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는 1973년 1월 13일,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페루 대중음악과 크리올라 음악을 연주하는 유명 기타리스트였고, 어머니는 가수와 연주자들이 출연하는 바를 경영했다. 주요 출연자가 병으로 오지 못하는 날이면 플로레스는 언제나 대타로 출연했다. 그래서 10대에 이미 페루 민속음악인 와이뇨(Huayno)부터 엘비스 프레슬리까지 못하는 노래가 없었다. 원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활동할 생각으로 플로레스는 열일곱 살에 리마 국립음악원에 입학했다. 그러나 그의 천부적인 성악적 재능을 알아본 스승은 그를 클래식 음악의 길로 이끌었다. 플로레스는 곧 페루 국립합창단원이 되었고,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와 로시니의 '작은 장엄미사'에서 독창자로 노래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그는 필라델피아 커티스 음악원 장학생으로 공부하며 훗날 그의 전문분야가 된 로시니와 벨리니, 도니체티의 벨칸토 레퍼토리들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번 앨범은 플로레스가 모차르트의 유명 오페라 아리아들만을 집대성하여 발매하는 첫 '모차르트 모음집'으로, 오페라 '마술 피리', '돈 조반니', '여자는 다 그래' 등 모두에게 사랑받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아리아들로 구성되어 있다.

BOOK

박현주 · 북칼럼니스트



부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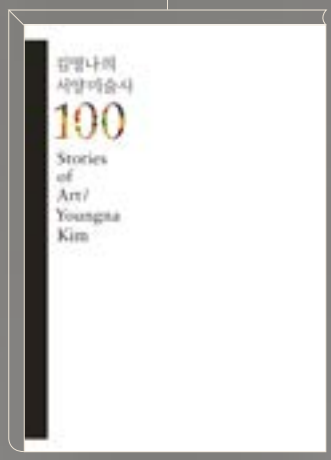
임재천 사진 / 눈빛 / 192p / 3만 5천원

사진작가 임재천 씨가 부산의 속살을 담은 사진작품을 책으로 엮었다. 임 작가는 잊히고 사라져가는 한국의 풍경을 필름 카메라로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이다. 그는 '대안 공간 SPACE22' 진행으로 국내 6개 도 3개 시 중 한 곳의 사진을 찍는 '50+1' 프로젝트의 세 번째 주제로 제주도, 강원도에 이어 부산을 택했다. 90일간 하루 평균 20km씩을 걸으며 부산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6천 3백여 컷이 그의 렌즈에 잡혔다. 이 책에는 그 중에서 고르고 고른 사진이 수록됐다. 사람에게 이력이 있다면 땅과 대기에도 역사가 있다. 임 작가가 그동안 겸허하게 지향해 온 '발견의 사진'은 그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한다. 그는 프레임을 비틀거나 사진적 기교를 부리지 않고 정공법으로 부산을 자신의 사진에 끌어들였다. 과도한 클로즈업도 보이지 않고 그저 부산이 부산을 말하도록 했다. 기록자로서 임 작가는 '산을 등에 업고 바다를 가슴에 안은' 부산을 촬영했다. 어시장과 항구의 사람들, 자갈치 아지매들, 바다가 좁아 보일 정도로 많은 주상복합 빌딩과 아파트가 들어선 해운대구, 산복도로 아래로 게딱지 같은 집들과 멀리 바다가 펼쳐진 풍경. 부산이 이 책에 있다.

Across The Universe;비틀즈 전곡 해설집

한경식 지음 / 안나푸르나 / 1,112p / 4만 8천원

비틀즈를 사랑한 한 소년의 꿈이 만들어낸 비틀즈 전곡 해설집. 비틀즈를 좋아했던 소년은 대기업 엔지니어로 성장했고, 마흔이 되기 전에 비틀즈에 대한 책을 내고 싶었다. 2001년 그는 〈The Beatles Collection〉을 출간했다. 비틀즈에 대한 많은 번역서들 중에서 그의 책은 '한국 저자가 한국어로 직접 쓴 책'으로 빛났다. 저자는 초판본의 미진함을 채우기 위해 16년간 공들여 수정하고 보완해 다시 개정판을 냈다. 총 1,112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개정판에는 각 곡의 원곡 가사와 번역을 병기했고, 참가 뮤지션, 녹음 시기, 장소 등의 데이터에 그 곡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담았다. 단순히 노래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비틀즈의 역사와 멤버 개인의 삶까지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비틀즈가 활동하던 시대상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새롭게 비틀즈의 팬이 된 신세대에게도 큰 도움을 준다. 비틀즈의 음악은 초기에는 그 시대상을 반영했으나, 중기와 후기를 거치면서 시대를 앞서갔다.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비틀즈가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로 기억되는 이유이다. 비틀즈 열혈 팬은 물론 비틀즈 입문자에게도 소중한 자료가 되는 책이다.



김영나의 서양미술사 100

김영나 지음 / 효형출판 / 448p / 2만 4천원

미술사학자 김영나 씨의 서양미술사 이야기. 저자는 부친 김재원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이어 2011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 최초의 부녀 국립중앙박물관장이라는 흔치 않은 이력을 가진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서양미술 연구 1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저자가 일간지에 연재했던 기사를 대폭 보완하여 완성한 책으로, 저자가 엄선한 100편의 해설이 실려 있다. 소개된 작품의 소재와 주제에 따라 미술 속의 신화, 종교, 정치, 휴머니즘, 후원자, 동서교류, 논란, 혁신 등 여덟 가지 장으로 분류되어 있다. 서양미술사에 얽힌 100가지 해설에는 피카소나 반 고흐처럼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화가의 에피소드가 있는가 하면, 체계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린 작품인 '나이브 아트'의 매력도 만날 수 있다. 저자는 "하나의 작품에는 작가의 창의적 · 심미적 재능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며, 미술가가 겪은 인문학적 경험들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고 말한다. 저자가 펼쳐놓은 방대한 미술의 역사를 따라가는 동안 서양미술사에 관한 배경지식을 쌓게 된다. 한국인 학자로서 서양 작가들이 우리의 역사를 소재로 한 작품을 다루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SNS 서포터즈
공연관람기

서포터즈 공연을 이야기하다

(재)부산문화회관 SNS 서포터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부산문화회관의 공연소식,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KBS교향악단과의 두 번째 만남

정지은
www.instagram.com/la_valse

2015년 4월 처음 KBS교향악단의 연주회에 갔었다. 그때 받았던 감동을 잊지 못하던 차에, 2년 후 다시 부산문화회관에서 초청연주회가 열렸다. 2년이 지나면서 지휘자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기대에 부풀어 공연장을 찾았다.

첫 곡은 힌데미트의 '폰 베버 주제에 의한 교향적 변용'이었다. 요엘 레비의 힘차고 시원한 지휘로 시작된 1악장은 관현악의 멜로디가 어딘가 긴박감을 주었고 2악장은 반대로 부드럽고 섬세함이 느껴졌는데 그에 걸맞게 지휘 또한 세심했으며 중간에 관악기와 현악기가 불협화음 선율을 주고받으면서 신비로운 느낌을 받았다. 3악장은 어둡고 암울한 느낌이었다. 단조에서 장조로 바뀔 때 현악의 멜로디가 특히 아름다웠고 여전히 요엘 레비의 지휘는 꼼꼼했다. 4악장은 다이나믹한 변화가 긴장감을 주었고 첫 시작은 슬프고 웅장했지만 밝고 희망적인 행진곡으로 전환되어 힘차게 곡이 마무리됐다. 두 번째 곡은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이었다.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곡이어서 더욱 집중했다. 바이올리니스트 미도리는 당찬 걸음으로 무대에 올랐고 생각보다 체격이 아담했다. 하지만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힘찬 파워와 섬세한 테크닉, 애잔하고 절절한 소리에 매료되어 30분을 넋 놓고 봤던 것 같다. 인터미션 때는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다. 2부는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영웅의 생애'였다. 이 곡은 슈트라우스가 쓴 교향시의 총결산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이며, 표제인 영웅은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자서전적인 음악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관악기로 위풍당당하게 시작하고 이 곡에 슈트라우스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긴 듯했다. 특히 바이올린 솔로 부분의 멜로디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KBS교향악단은 다시 한 번 기대 이상의 연주를 해주었고 뜨거운 감동을 전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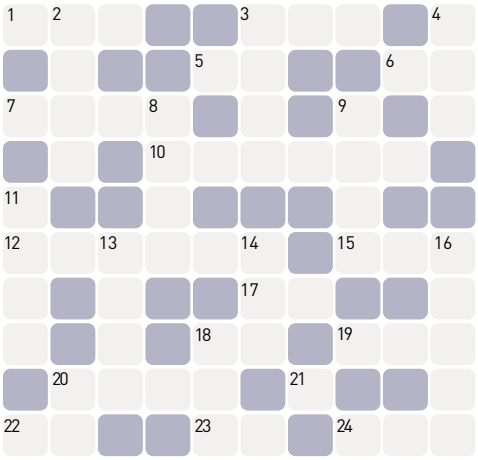
2017 노자와 베토벤 '희로애락(喜怒哀樂)' - Ⅲ. 애(愛)

이지혜
blog.naver.com/wlgp7773

9월의 마지막 날 오후 5시, 2017 노자와 베토벤 '희로애락(喜怒哀樂)' 중 '애(愛)' 공연이 있었다. 서포터즈 첫 활동이 '희로애락(喜怒哀樂)' 중 두 번째 무대인 '로(怒)' 공연이었는데, 그 당시 최진석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도 컸다.

1부에서는 베토벤, 알비노니의 곡, 2부에는 라흐마니노프, 차이콥스키의 곡이 이어졌다.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담아 이러한 곡들을 작곡했는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또 교수님의 말씀도 상기하면서 곡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의 삶은 '희로애락'의 연속이다. 어느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독을 느낀다.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있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무엇을 해온 것인지 내 삶을 되돌아보며 공허함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이 생각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이고 진실된 것이기 때문이다. 슬픔은 마냥 떨쳐버려야 할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성장할 수 있다. '나'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즐거움에 대해 철학적 고찰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면, '클래식, 철학을 듣다' 마지막 무대인 '락(樂)' 공연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열쇠

① 성남시립예술단 총감독이자 상임지휘자, 한경 필하모닉 초대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 지난 10월부터 '2017-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무대로 부산시민과 만나고 있다.

③ 영화 '사이코', '새' 등 새롭고 독창적인 스릴러 영화로 '스릴러 영화의 거장'으로 추앙받는 영화감독.

⑤ 각각의 의미가 담긴 그림이 그려진 22장의 대 아르카나와 56장의 소 아르카나로 된 카드 패로, 카드 게임뿐 아니라 점술에 사용된다.

⑥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땅.

⑦ 영국 본토 서쪽의 섬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 수도는 더블린.

⑩ 러시아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오늘날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도 가장 널리 연주되고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피아노협주곡 제2번' 등 피아노곡에 걸작이 많다.

⑫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를 바탕으로 한 창작 뮤지컬로, 극중에 세르반테스가 직접 등장해 이야기를 이끌어나간다.

⑮ 팝의 1세대 아티스트이자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 포시즌스와 더불어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팝의 거장 닐 세다카의 희트곡을 뮤지컬로 제작한 작품.

⑰ 두꺼비의 옛말.

⑱ 공기 중의 수증기가 얼어붙은 것으로, 초가을부터 늦은 봄에 걸쳐 기온의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없는 맑은 날 밤에 잘 내린다.

⑲ 주요산업이 관광업으로, 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유럽에서 가장 호화로운 휴양지로 손꼽히는 독립공국이다. 나라명과 수도명이 같다.

⑳ 프랑스의 파리 동편에 있는 중세시대 요새로 17, 18세기에 국사범 감옥으로 쓰였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던 날, 무장한 파리 시민에게 습격을 받았던 이 곳은 프랑스 혁명의 이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㉑ 정서나 사상 따위를 운율을 지닌 함축적 언어로 표현한 문학의 한 갈래.

㉒ 사람의 나이 예순 살을 이르는 말.

㉓ 미터계 단위의 109(10억)을 나타내는 접두어. 보통 단위명 앞에 붙어 109배를 나타낸다.

㉔ 지난 2013년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의학드라마를 미국 ABC 방송이 리메이크한 드라마로, 현재 미국에서 '월요일에 가장 많이 본 드라마'' 자리에 오르며 선전하고 있다.

세로열쇠

② 조선 중기의 무신 이순신이 임진왜란 7년(1592년~1598년) 동안 군중에서 쓴 일기. 1962년 12월 20일 대한민국의 국보 제76호로 지정되었다.

③ 1945년 8월 6일 미국 공군에 의한 세계 최초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던 일본의 도시. 핵무기 금지를 위한 평화운동의 정신적 중심지로, 1947년 원자폭탄희생자협회가 창설되어 방사선의 영향에 대한 의학적 · 생물학적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④ 올해로 서거 190주기를 맞는 '음악의 성인'이라 불리는 작곡가. 부산지역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로 지난 8월 개관한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을 기념해 11월 21일부터 피아노 음악의 신약성서라 칭해지는 그의 피아노 소나타 32곡 전곡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된다.

⑧ 루마니아 트랜실바니아 지방의 전설에 의거해 쓴 아일랜드의 작가 B. 스토커의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자 이 소설을 각색한 연극 및 영화제목.

⑨ 이탈리아의 작가 C. 콜로디의 동화 또는 그 주인공 이름. 제페트 할아버지가 만든 나무인형으로, 마치 인간처럼 말도 하고 움직이는데, 거짓말을 하면 코가 커지는 것으로 유명하다.

⑪ 혼자서 여러 악기를 동시에 연주하는 거리 공연자로, 혼자 활동하는 음악 밴드와는 개념이 다르다.

⑬ 형제(brother)와 로맨스(romance)가 결합된 조어로 남자들 사이의 진한 유대와 우정을 지칭하는 말.

⑭ 대한민국의 전 축구 선수로, 과거 축구 선수, 축구 감독,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했던 차범근의 아들이다.

⑯ 일정한 레일 위를 달리도록 만들어진 놀이기구. 360도로 도는 구간에서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작용해 승객이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는다.

⑱ 중국 4대 기서 가운데 하나로, 삼장법사 현장이 불경을 구하러 손오공 일행과 멀리 천축(인도)까지 갔다 온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다.

⑳ 리드가 두 개인 목관 악기로, 목관 악기 중에서 가장 낮은 음을 낸다. 파곳이라고도 한다.

공간소극장 | 051-611-8518 큰집 | 051-245-3320
조은극장 | 1588-2757 옐로인 플라워 | 080-337-3370

공간소극장 SPACE THEATER
韓國傳統飮食店 큰 집
BNK 부산은행 조은극장
yelloin FLOWERSHOP 옐로인 플라워

지난호 정답

1고	토	2미	도	3리		4고		5백	야
향		스		6메	두	사		악	
7의	가	사		이		8성	균	관	
봄		9이	라	크		어			10장
	11속	공			12돈		13해	어	화
	리			14시	조		운		신
15장	산	16범			17반	구	대		은
		18어	처	19구	니			20법	고
21삼	총	사		미		22가	23마		양
척			24수	호	지		25하	와	이

10월호 퍼즐 당첨자

옐로인플라워	이혜나(동구 중앙대로), 최철호(기장군 정관5로)
큰집 식사권	김동환(수영구 광안해변로), 김황연(사하구 사하로), 박선자(사하구 냉정로), 신해영(사하구 오작로), 이귀숙(해운대구 좌동순환로)
조은극장	김순이(북구 화명신도시로), 김미자(서구 충무대로), 이덕주(사하구 양지로), 이지훈(해운대구 대천로), 최지선(중구 중앙대로)
공간소극장	김혜진(사하구 하신번영로), 문주은(수영구 수영로), 이정철(남구 석포로), 이찬욱(해운대구 좌동순환로), 정기홍(남구 우암로)

(재)부산문화회관 오페라 아카데미

2017 문화대학 오페라V '오페라 명작 속으로'

김상헌

황장원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어렵고 생소하게만 느껴지는 오페라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오페라 아카데미 '오페라 명작 속으로'를 마련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오페라는 왜(Why)', '오페라는 어떻게(How)', '오페라는 무엇이(What)' 등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오페라의 매력을 파헤쳐보는 김상헌의 '오페라, 세 가지 질문으로'에 이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오페라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세 나라의 대표적인 오페라 '리골레토', '카르멘', '탄호이저'를 통해 각 국가별 오페라의 특징과 역사를 짚어보는 황장원의 '19세기 오페라 명작 집중감상'이 펼쳐진다. 서울대학교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대학에서 작곡과 음악이론을 전공한 강사 김상헌은 드라마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품위있는 그녀' 등에서 음악감독을 맡았으며, 현재 서울 예술의전당, 성남아트센터에서 음악전문 아카데미를 진행해오고 있다. 칼럼니스트이자 해설가인 황장원은 서울시립교향악단 프로그램노트 및 네이버캐스트 '음악의 선율'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풍월당, 서울 예술의전당, 성남아트센터, 대구 수성아트피아, 무지크바움 등에서 클래식 음악감상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오페라, 세 가지 질문으로(강사/김상헌) 11월 1일(수)–15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2:00~4:00 부산문화회관 컨퍼런스홀
19세기 오페라 명작 집중감상(강사/황장원) 11월 22일(수)–12월 6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2:00~4:00 부산문화회관 컨퍼런스홀

문의/(재)부산문화회관 전시교육팀 607–6061~3, www.bscc.or.kr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화승 사회공헌 프로젝트

날개를 펴다

11월 26일 일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재)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립예술단이 부산의 대표기업 화승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날개를 펴다'가 11월 26일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펼쳐진다.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프로젝트는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앙상블 '더 날개'와 부산시립교향악단 '매직 브라스'가 함께하는 무대로, 전문음악인으로서의 진로를 모색하는 앙상블 '더 날개' 단원들에게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전문적인 멘토링을 제공하고, 합동연주를 통해 장애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립예술단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공연예술지원사업으로, 사회공헌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프로젝트를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베트남 '호치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 특별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참가

경주시와 베트남 호치민시가 문화 교류를 통한 양국의 우호 증진과 아시아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호치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 축하무대를 위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11월 베트남을 찾는다.

우선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11월 15일과 16일 베트남 호치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특설무대와 호치민국립음악원 연주홀에서 각각 열리는 APEC세계정상회담 베트남 개최를 기념하는 '호치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초청 특별음악회'와 한국 · 베트남 수교 25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무대에 선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도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베트남 호치민 9 · 23공원 엑스포 야외무대에서 '호치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 개최를 축하하는 무대를 통해 우리 전통음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부산의 문화사절단으로서 문화도시 부산을 홍보한다.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VIP

연 회 비 10만원
초 대 권 8매(기획공연 4매, 예술단공연 4매)
할인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지정된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에서 예매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 무료주차권 10매

SPECIAL

연 회 비 5만원
초 대 권 4매(예술단공연 4매)
할인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무료주차권 6매

MEMBER

교향악단 · 청소년교향악단 | 국악관현악단 |
합창단 · 소년소녀합창단 | 무용단 | 극단

연 회 비 3만원
초 대 권 2매(예술단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예술단공연(5개 단체)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무료주차권 4매

※ 가입단체 초대권증정 및 비가입단체는 예술단공연입장료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음.

※ 문의 :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TEL. 051-607-6075(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제외) www.bscc.or.kr

공통혜택

- 가입회관(극단)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매월 우송
- 공연정보(SMS) 서비스제공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 부산시립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무료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음료 등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매월 1회, 주점)
- 제휴업체 할인 등

※ 단체가입할인 :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부산시립무용단 제77회 정기공연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Korean Contemporary Dance

DANCE

FOUR'S

예술감독 김용철
Artistic Director **KIM Yong-Chul**

2017. 11. 23 Thu - 24 Fri /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입장권 균일 10,000원 예매처 부산문화회관 www.bscc.co.kr 문의 051)607-3121~2

부산시립합창단
BUSAN METROPOLITAN CHORUS

Les Misérables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뮤지컬 갈라콘서트

Look Down / At the End of the Day / I Dreamed a Dream / Who am I? / Master of the House / Stars / Do You Hear the People Sing?
In My Life / A Heart Full of Love / On Day More / On My Own / Drink with Me / Bring Him Home / Turning

〈 지휘 | 전진(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 출연 |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콘서트오케스트라〉

2017. 11. 30(목) 오후8: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 부산문화회관 주 관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입장료 | R석(1층) 20,000원 / S석(2층) 10,000원 예 매 | www.bscc.or.kr
문 의 | 051)607-3116(시립합창단), 051)307-6075(정기회원)
할 인 |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초·중·고등학생, 다자녀가정, 임산부, 의사자 및 유족, 의상자 및 직계가족, 모범납세자
30% 단체(30명 이상),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 대학생(학생증소지자)
20% 단체(20명 이상), 가족할인(3인이상 가족), 합창매니아(이전 합창단 티켓 소지자), 외국인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마르티누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MARTINU CZECH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레오스 스와로브스키

2017. 11. 9 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레오스 스와로브스키	스메타나	「나의 조국」 중 '몰다우'
협연	피아니스트 백민정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제2번, Op.18
연주	마르티누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Op.95

입장료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1만원	주최	부산문화회관	후원	Zlínský kraj zlín.

문의 및 예매	051)607-6000 www.bscc.or.kr (초등학생이상 입장가능)

2017 - 18 NEW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BEETHOVEN SYMPHONY CYCLE

CONCERT III

베토벤 교향곡 제 9번 〈합창〉

Beethoven Symphony No. 9 <The Choral>

지휘 금난새 Gum Nanse
소프라노 김유진
앨토 박소연
테너 김지호
베이스 김태경
연주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연합합창단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7. 12. 29. Fri. 19:30

티켓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예매 및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www.bscc.or.kr
인터파크 1544-1555 www.interpark.com

휴병원

환자의 질환별 꼭 필요한 **최선의 치료**
과잉진료를 권하지 않는 **청렴한 병원**
관절 질환 치료를 잘하는 **신뢰받는 병원**

지하철 2호선 부암역 8번출구 대표번호 051-**803-9000** FAX 051-**802-7171**

정형외과 TEL. 051-803-9000 내선번호(200)
종합건강검진센터 TEL. 051-207-6000 FAX. 051-207-6611
내과 TEL. 051-803-9000 내선번호(300)
물리치료센터 TEL. 051-803-9000 내선번호(500)
영상의학과 TEL. 051-803-9000 내선번호(222)

hyomin dnp
design creative group

최고의 크리에이티브와 전략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효민디앤피

커뮤니케이션 목표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가장 완벽한 서비스와 컨설팅 노하우까지,
시장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소식지

PPT 디자인

카다로그

출판

보고서

일러스트

연혁

1986 03	효민문화사 설립
1993 05	효민인쇄출판사 상호 변경(출판등록 : 제3-329호)
2001 08	지식경제부 공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출범(시각 디자인)
2001 08	효민디앤피 상호 변경
2006 04	4색 옵셋인쇄기 도입
2010 11	지식경제부 공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 제품 디자인)
2011 03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 포장, 멀티미디어 디자인)
2012 07	효민디앤피 사옥 준공
2013 12	부산광역시 창조문화산업 선도기업 선정 (2014-창조문화산업-20) (전)
2014 01	효민디앤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4 11	6색 옵셋인쇄기 도입
2016 08	인쇄 공장 및 사옥 증축(350평 규모)
2016 10	중소기업청 이노비즈(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인증

수상 및 인증현황

2005 10	지식경제부 주최 Good Design 마크 획득 (천년약속)
2006 04	지식경제부 주최 Success Design 마크 획득 (천년약속)
2006 07	벤처기업 지정 (제061235033-1-00267호) (전)
2007 07	경영혁신기업 선정 (제070201-01884호)
2010 02	부산광역시 디자인부문 선도기업 선정 (전)
2012 02	벤처기업 지정(제20120101387호) (전)
2015 03	기획재정부장관 표창(모범납세자)
2016 03	지방세 우수납세자 표창(부산광역시)
2017 01	부산광역시 창조문화산업 선도기업 선정 (2017-창조문화산업-16)

2017 부산오페라 WEEK

오페라 갈라콘서트

Gala Concert

2017.12.1 Fri 7:3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문의 051-644-1001

송년 오페레타

박쥐

Johann Strauss
Die Fledermaus

2017.12.9 Sat 7:30pm, 12.10 Sun 5: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051-853-2341

오페라 인 콘서트

La Bohem

2017.12.5 Thu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1544-9373

주최: 부산광역시 그랜오페라단, 솔오페라단, 부산오페라단
주관: 부산문화회관 그랜오페라단, 솔오페라단, 부산오페라단
예매: 인터파크

시력교정술
고민하시고 계시나요?

누네빛안과는 라식, 라섹, 스마일라식, 렌즈삽입술 등 한가지 수술에
치우치지 않고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시력교정술**을 권해드립니다.

누네빛안과

롯데호텔 14F | 051.810.5678 | www.nunevit.com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력원자력(주)
사회공헌프로젝트

그린어린이 합창단 드림콘서트

2017년 11월 18일(토)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특별출연
마술사 최 현 우

주최 _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 부산일보사 | 국제신문
후원 _ 한국수력원자력|주 | 고리원자력본부
출연 _ 그린어린이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참여단체 : 낙동지역아동센터, 대신지역아동센터, 동래튼튼이지역아동센터, 명륜지역아동센터, 모전지역아동센터, 문현지역아동센터, 반여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부산센텀지역아동센터, 사하중앙지역아동센터, 새에덴지역아동센터, 선암지역아동센터, 연제지역아동센터, 재반지역아동센터, 좌천지역아동센터, 푸른지역아동센터,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행복지역아동센터

문의 _ 051-607-6066 전석무료초대